

이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4
주요인사 / 6
외교관계 / 7
주한주재 국기관 / 9
한국과의 주요이슈 / 9

II. 경제

경제정책 / 13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15
주요 산업 동향 / 16
정보조사 자료원 / 19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 통계 / 20
무역통계 / 20
투자통계 / 27

IV. 출장가이드

기후 / 28
시차.근무시간 / 28
도량형 / 29
출입국.비자 / 29
환율.환전 / 30
물가정보 / 31
교통.통신 / 33
호텔.식당 / 34
관공서 관행 / 36
공휴일 / 36
여행시 유의사항 / 38
유용한 연락처 / 40
관광명소 / 43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47
수입규제제도 / 48
관세제도 / 51
주요인증제도 / 52
지적재산권 / 53
소비자보호제도 / 53
교역관련 국가기관 / 53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54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6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8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58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60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63
운송 / 63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64
유형별 분쟁사례 / 65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66

우리기업 투자동향 / 68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68

투자인센티브 / 70

타당성조사 / 71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72

입지선정 / 73

공장 설립 / 75

투자관련 정부기관 / 77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77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77

조세제도 / 79

외환관리 / 80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83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요

국명	이란회교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Iran
위치	- 중동 페르시아만 동부, 카스피 해 남부 - 이라크,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7 개국과 접경 - 동경 45-62 도, 북위 26-39 도
면적	165만km ² (한반도 면적의 7.5배)
기후	대륙성 기후 (4계절) 남부 지방은 아열대성 기후
인구	6,860만 명 (2005년)
민족	페르시아 51%, 아제르바이잔 24%, 길락-란다란 8%, 쿠르드 7%, 아랍 3%, 아르메니안 1%
수도	테헤란 (1,200만 명)
주요도시	마샤드, 이스파한, 타브리즈, 시라즈
언어	이란어 (Farsi)
종교	회교 시아파 94%, 회교 수니파 4%
정부형태	정교 일치 이슬람공화국 최고지도자 중심제
국회	단원제 (290석) 임기 4년, 2004.2월 총선 실시
국가원수	○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Ayatollah Seyyed Ali Khamenei - 취임일: 1989.6.4 - 임기: 종신 ○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 취임일: 2005.8.3 - 임기: 4년

나. 주요 경제지표

GDP	1,756억불 (2005년)
경제성장률	5.5% (2005년)
1인당 국민소득	2,550불 (2005년)
실업률	11.9% (2005년)
물가상승률	11.1% (2005년)
환율	US\$ 1 = 9,180 Rial (2006년8월)
외채	242 억불 (2005.12월), 중장기외채(135.7억불), 단기외채(106.8억불)
외환보유고	500억불 (2006.3월)

참고: 산업구조(2004년): 서비스 51.8%, 공업 34.5%(석유가스 10.4%). 농업 13.7%,

주: '06년 입수 가능한 최신통계임, 외채는 이란중앙은행 발표자료 기준

다. 한-이란관계

교역규모(2005년)	총수출 539억불 총수입 425억불
한-이란 교역	○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 - 2005년 : 21억 4,100만불 - 2006년 1-6월 : 11억 7,700만불 ○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입 - 2005년 : 35억 3,500만불 - 2006년 1-6월 : 24억 6,700만불
교민	국제 결혼자 39명을 포함하여 627명 (2006.8월) 이외 예도 200명 정도의 장기 체류 및 출장자 상시 체재
체결 협정	- 투자보장협정 : 2006.5월 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 무역협정 : 2006.7월 서명 (발효 대기중) - 항공협정, 해운협정 : 교섭 중

라. 이란 略史

1) 古代이란

- 선사시대
 - 기원전 2,500년경 아리안족(인도·유럽어족) 일파가 이란 고원으로 이주
 - 기원전 3,000~4,000년경 아시아 초원에서 거주하던 이란족이 서쪽 및 남쪽으로 이동, 서쪽으로 이동한 부족은 게르만족, 슬라브족, 희랍족, 라틴족 등의 원조
- 메디아 왕조 (B.C 780~B.C 550)
 - 기원전 8세기 말경, 이란족의 일파인 메디아(Medes) 족속이 앗시리아로부터 독립, 남부 이란과 소아시아에 걸치는 국가를 건설
- 아케메니아 왕조 ((B.C 550~B.C 330)
 - 키루스 대제는 아케메니아(Achaemenia) 왕조를 열고, 소아시아, 아르메니아 및 힌두 쿠시 지방까지 세력을 확장, 페르시아 제국(세계 최초의 제국)의 시작
 - 다리우스(Darius) 대제(1세)는 인도 북부에서 불가리아 남부까지 영토를 확장, 3차에 걸쳐 아테네 침공. 유명한 마라톤 전투(기원전 490년)에서 아테네에 패배
- 알렉산더대왕의 침공(B.C 333~B.C 330) 및 셀루키드(Seleucid) 왕조(B.C 312~B.C 247)
 - 아케메니아 왕조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알렉산더 사후 부하 셀루 쿠스 장군과 후손이 이란을 지배
- 파르티아 (Parthia) 왕조 (B.C 247~224)
 - 타지키스탄 지역의 파르티아족(이란족과 스키타이족의 혼혈)이 Arsaces의 지도 아래 흥성, 셀루 키드 왕조에 대항, 파르티아 왕조 설립
 - 동·서양을 잇는 교역이 흥성하였으며, 지배층은 배화교(拜火敎; 조로아스터교)를 숭배

- 사산(Sassan)왕조 페르시아(224~652)
 - 전설적인 영웅 ‘사산의 후예’라고 자처한 파르티아 왕조 신관(神官)의 아들 Adar-shir 는 파르티아 왕조를 무너트리고 사산 왕조 수립
 - 로마와 긴장이 지속되고, 동서양 교역의 중로 부상

2) 中世이란

- 아랍족의 지배 (7c~11c)
 -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사후, 제 1 대 칼리프 Abu Bakr 가 이끄는 아랍군이 651년 사산왕국 을 정복
- 셀주크(Seljuk) 터키의 지배 (1037~1220)
 - 압바시아 아랍제국의 전사 계급이었던 투르크계 셀주크족의 지도자 Tugril Beg 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흥성, 이스파한을 중심으로 시리아, 이라크, 인도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
- 몽고족의 지배(1220~1502)
 - 셀주크 터키를 정복한 칭기스칸의 몽고족은 이란 전역을 황폐화하고 대규모 학살을 자행
 - 칭기스칸 사후 그의 손자 훌로구칸은 이란 지역에 일(II) 칸국을 건설

3) 近代이란

- 사파비드(Safavid)왕조 (1502~1722)
 - 이란 서북부 지방에 은둔하던 이슬람 시아파 집단이 이스마일(Ismail)의 영도 아래 정복전쟁을 개시, 1502년 타브리즈를 수도로 사파비드 왕조를 수립(이슬람 시아파를 국교로 채택)
 - 651년 아랍족의 침입 후 약 1,000년 만에 이민족의 지배 탈피, 샤 압바스(1587~1629)통치 하에서 이스파한으로 천도
- 카자르(Qajars)왕조 (1795~1925)
 - 카자르가의 아가 무함마드 칸은 잔드 왕조를 평정하고 테헤란으로 천도(1789년)
 - 19세기 중엽부터 러시아와 영국이 이란에 진출, 코카서스 지역을 러시아에,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영국에 할양, 현재와 같은 국경선의 윤곽이 형성
 - 영국은 1919년 러시아의 세력이 공산혁명의 화중에 약화된 틈을 이용 사실상 이란을 保護領화 하는 조약을 체결

4) 現代이란

- 팔레비(Pahlavi) 왕조 (1926~1979)
 - 코사크부대 사령관이던 레자 칸이 1926년 극에 달한 반영감정을 배경으로 반란을 주도 팔레비 왕조를 수립
 - 이란의 근대화에 주력, 과감하고 체계적인 서구화 작업을 주도

- 팔레비 왕은 친미, 친영 노선을 견지하면서 토지개혁, 문맹퇴치, 노동자 우대 등 ‘백색혁명’ 추진
- 이슬람 성직자 계급은 당시 존경받는 성직자였던 호메이니의 지도 아래 백색혁명에 대한 반대 운동과 더불어 팔레비 왕의 독재 정치에 대한 비판활동 전개

○ 이란 이슬람 공화국(1979~현재)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정치체제

- 최고지도자 중심의 회교공화제 국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생활 전반의 이슬람화를 추진하는 혁명 이념에 입각한 친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세계 유일의 신정정치(Theocracy) 체제로 국가권력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최고지도자와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3권 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 지도자 운영 회의, 국정 조정 회의, 헌법수호 위원회, 혁명 수비대, 혁명 재판소 등 헌법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나. 헌법기관

- The Assembly of Experts 국정지도자운영회의
 - 국민의 직접선거로 구성
 - 위원 86명, 임기 8년
 - 최고지도자 사망 등 유고시 최고지도자 선임
- The Expediency Discernment Council of the System 국정조정회의 1988.2월 설치
 - 최고지도자 보좌, 헌법수호위원회와 국회간 대립 중재
 - 최고 지도자 유고시 선임전까지 일시적으로 지도자직 역할 수행
 - 의장은 Rafsanjani 전 대통령
 - 위원은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며 헌법 수호 위원회 위원, 외무장관, 내무장관, 국방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27명으로 구성
 - 임기 5년
- The Guardian Council of the Constitution 헌법수호위원회
 -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는 신학자 6명, 국회가 임명하는 민간 법률가 6명 등 12명으로 구성 임기 6년
 - 국회 입법에 있어 상원과 유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수행 및 헌법 해석권 행사

다. 행정부

-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직접/보통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함.
- 대통령은 9명의 부통령 및 22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내각을 관장하며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은 국회 의 개별 인준을 받아 공식 임명됨. (부통령은 국회 인준 불요)
- 국회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불신임시 최고지도자는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음.
- 국회는 각료 전체 또는 개별 장관에 대해 불신임권을 갖고 있음.

라. 국회

- 총 의석 수는 290석이며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됨.
- 아르메니아교 2명을 비롯하여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앗시리아정교 각 1석 등 종교 소수파에도 의석을 할당하고 있음.
- 국회의원은 직접/보통 선거로 선출되며 국회 의결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 비준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됨.
-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국정조정회의가 중재, 최종 결정함.
- 현 7대 국회는 2004.2월 총선으로 선출되었음.

마. 사법부

- 사법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슬람화가 추진되어 특히 형법, 가족법은 이슬람 종교 원칙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
- 사법부 최고 실권자는 Mohammad Yazdi로 최고지도자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임.
- 재판 제도는 민사 및 형사 재판 구분하여 3심제로 운영하며, 기타 혁명재판소, 성직자 재판소, 행정재판소, 마약재판소 등 특수 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음.

바. 선거 제도

-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됨.
- 피선거권은 29 ~ 72세, 선거권은 만 16세 이상의 이란 국민에게 부여됨.
- 2004. 2월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2005. 6월 대선이 실시되어 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당선됨

사. 정당 제도 및 현황

- 1987.6월 집권당인 회교공화당이 호메이니 지시로 해체된 후 공식 정당은 없음.
- 1988.12월 신정당법은 내무부 허가를 요건으로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허가는 하지 않고 있음.

3. 주요 인사

가.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 : 하메네이(Ayatollah Seyyed Ali Khamenei)

- 호메이니 사망 후 국정지도자운영회의에서 선임된 제2대 최고 지도자
- 취임일 : 1988.6.4
- 임기 : 종신
- 약력
 - 1939. 2.15생
 - 1957년 마샤드 고등학교 졸업
 - 1958년 마샤드 신학교 및 이라크 Najaf 신학교 수학
 - 1959년 Qom시 이주 후 Boroujerdi, Haeri, Khomeini에 사숙
 - 국회의원, 이슬람혁명군 사령관, 제3-4대 대통령, 국가정책회의(Expediency Council) 의장 등 역임
- 최고 통치권자로서 군 통수권, 군사령관 임명권을 가지며 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을 비롯하여 국정 조정회의 의장,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임명권 등 절대권력 행사

나. 대통령 :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 취임일 : 2005.8.3
- 임기 : 4년
- 약력
 - 1956년 Garmsar 지방에서 출생, 자녀 : 1남1녀
 - 1975년 Tehran Science & Technology 에서 Civil Engineering 전공
 - 1987년 동 대학에서 Engineering and Traffic Transportation 으로 박사 학위 취득
 - Kord 시장 자문역, Maku 및 Khoy 부지사, Ardebil 주지사, 테헤란 시장 등 역임

다. 정부 주요 부처 장관 (2006.8월)

- Agriculture : Mohammed-Reza Eskandari
- Commerce : Masoud Mir-Kazemi
- Culture & Islamic Guidance : Mohammed-Hosseini Saffar-Harandi
- Defence : Mostafa Mohammed-Najjar
- Economy & Finance : Davood Danesh-Jafari
- Education : Mahmoud Farshidi
- Energy : Parviz Fattah
- Foreign Affairs : Manouchehr Mottaki
- Industries & Mines : Alireza Tahmasebi
- Information (Intelligence) : Gholam-Hosseini Mohseni-Ejei
- Interior : Mostafa Pour-Mohammedi
- Justice : Jamal Karimi-Rad
- Labour & Social Affairs : Mohammed Jahromi
- Oil : Kazem Vaziri-Hamaneh
- Welfare and social security : Abdolreza Mesri

라. 기타 정부 인사

- Iranian Atomic Energy Organization : Gholam-Reza Aghazadeh
- National Security Council : Ali Larijani
- Supreme Speaker of the Majlis : Gholam Ali Hadda Adel
- Planning & Management Organization : Farhad Rahbar
- Head of Presidential Office : Gholam-Hosseini Elham
- Central Bank Governor : Ebrahim Sheibany

4. 외교관계

가. 미국과의 관계

1979년 회교혁명 및 주이란 미국대사관 점거 사건 이후 1980.4월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음.

1998.1월 하타미 대통령이 미국과의 대화 촉진을 제안함에 따라 양국간 민간 교류가 다소 활성화되었 으며 클린턴 정부의 대이란 제재 완화로 관계 개선 조짐을 보였음.

그러나, 2001.1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2001.3월 대이란 무역 및 투자 금지 조치가 갱신되고 2001.7월 이란 및 리비아 경제제재법이 연장됨에 따라 양국 관계는 답보 상태에 접어들었음.

9.11 테러 사태와 관련, 하타미 대통령이 테러 행위를 즉각 비난하고 나선데 이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축출 및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양국간 협조가 이루어졌으나 2002.1월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이란을 북한,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적하고 2002.3월 핵정책 보고서에서 이란 이 7개 핵 공격 대상국의 하나로 밝혀지면서 양국 관계는 개선이 어려운 상태로 반전되었음.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시 이란은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이라크전 종료 후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재건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등 대미 관계 개선 가능성이 비쳐지기도 하였으나 2005.8월 보수강경 노선의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출범으로 이란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핫이슈 로 등장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음.

나. 대유럽 관계

독일, 프랑스,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EU는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조하나, 경제 문제는 독자노선을 추구,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반대하고 대이란 관계 강화에 적극적임.

이에 따라 하타미 전 대통령은 회교혁명 후 이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999.3월 이태리를 방문한 바 있음.

EU는 정기적으로 이란과 Troika 회담 (현재, 과거, 향후 EU 의장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이란 투자와 신용 공여를 하고 있음.

EU와의 관계 강화는 이란의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압력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출범 이후 이란의 핵 활동 재개와 관련하여 IAEA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나 동 문제의 UN 안보리 회부 건을 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다. 대아시아 관계

이란은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 회복을 위한 대외관계의 기본 축을 EU 및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국과의 관계 강화로 설정하고 있음.

특히 이란은 경제 회복에 있어 동북아 3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타미 전 대통령은 2000년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바도 있음.

이란의 현 정권 출범 이후 이란 핵 문제가 IAEA 등 국제사회에서 핫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국과 에너지와 산업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2005.10월 한국산 수입승인을 규제하는 등(06년1월 완전해제) 다소 소원한 상태에 있음.

그러나, 2006년 들어서는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5월 발효된 데 이어 7월에는 2002년 이후 중단되어 왔던 경제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교역, 에너지, 산업 협력에 관하여 합의한 바 있음.

라. 이스라엘과의 관계 및 지역협력

이란은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지지 및 철저한 반이스라엘 정책을 견지해 온 바, 아흐 마디네자드 대통령의 경우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등 강경한 발언을 서슴치 않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과거 이슬람혁명, 이라크와의 전쟁 등으로 야기된 주변 아랍국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하타미 정권 시절 대외 선린외교에 따라 크게 개선된 바, 특히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은 페르시아만 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이외에도 2001.4월에는 예멘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여 지역 안보, 산업협력 등 양국간 현안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과거 이란과 중동의 맹주를 다투던 이집트도 2002년 외무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이란과의 관계 회복 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음.

한편, 이란은 이슬람 국가간 지역경제협력기구인 ECO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를 통한 지역간 협의를 강화하고 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의장국 지위를 활용하여 이슬람권의 단결을 유도하고 있음.

또한 구 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 개발 및 역외 접근 노력에 주목하여 중앙아시아 내륙국 의 페르시아만 Access 역할을 내세워 정치경제적 협력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음.

5. 주한주재국기관

가. 주한 이란 대사관

- 전화 : (02) 793-7751/3
- 팩스 : (02) 792-7052/3, 796-8850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126
- 참고사항
 - 토, 일요일 및 이란 주요 국경일 휴무
 - 오전 시간에만 비자 신청 접수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1) 이란-미국 주요 관계 일지

1979년	이슬람 혁명군 미 대사관 점거, 52명의 미국 대사관 직원 인질 사건 발발
1980.4월	미국의 인질 구출 작전 실패, 대이란 단교 선언
1981년	미국의 인질 구출 작전 실패, 대이란 단교 선언
1981년7월3일	이란, 미국인 인질 52명 억류 444일만에 본국 귀환 조치
1995.6월	미 공군기, 이란 민항기 격추 탑승자 285명 전원 사망
1996.6월	미국의 대이란 Embargo 발효
1997.6월	Damato법 발효로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
2001.3월	대이란 투자 한도를 4천만 불에서 2천만 불로 강화 및 대이란 무역투자 금지 조치 갱신
2002.2월	부시 대통령 연두교시에서 이란을 북한 및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
2002.3월	핵 정책 보고서에서 이란이 7개 핵 공격 대상국의 하나로 언급
2003.12월	이란의 Bam 지진 참사 직후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3개월간 유예
2004.3월	대이란 경제제재 1년간 갱신 및 3개월 유예 추가
2006.6 월	이란 핵 문제로 양국간 외교적 마찰 심화 - 미국 주도하에 UN 안보리 상정 - 미국, 유럽 3국 주도하의 경제제재 논의 등

2) 대이란 경제제재의 배경

- 미국은 이란이 혁명정부 수립 이후 "회교원리주의"에 입각, 레바논의 헤자볼라 등 세계 각지의 회교 반군에 대한 전격적인 원조를 통해 회교 팽창주의를 견지하면서 국제 테러를 통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자국 내 반정부 인사를 흑독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악화 요인이 되었음.

- 1992 년 하반기 이후 이란의 외환 사정이 악화되면서 대외부채 지급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은 이란 경제 재건을 와해시키는 적기로 판단, 서방 및 일본 등 이란의 주요 채권국에 경협 중단 압력을 가했으나 주요 채권국의 동조 거부로 일차 실패하였음.
- 한편, 1992 년 하반기부터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이란 경제는 1995 년에 들어 현지화의 가치 하락 및 각종 공과금 인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수년간 지속된 수입 제한 정책에 따른 생필품 및 원자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극도의 혼란 상태가 야기되었음.
- 이와 같은 이란의 어려운 대내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이란이 결국에는 회교 원리주의를 포기하도록 하여 중동 평화 문제, 국제 테러리즘, 핵 무기 개발 등 미국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상호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유럽 제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미국의 일방적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 하였음.

3) Damato법 주요 내용 (1996.6월 발효)

- 적용 대상 기업
 - 이란 및 리비아의 석유 및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4 천 만불 이상 신규 투자 기업
 - UN 의 리비아 교역 금지 결의안을 위반한 기업(무기, 유전장비 및 항공서비스 분야)
 - 이란의 경우 1997.6 월부터 투자규모를 4 천만 불에서 2 천만 불로 줄여 제재 강화
- 위반 시 조치 내용
 - 미국 수출입은행 및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거부
 - 미국 정부구매 참여 금지
 - 관련 회사 제품 수입 금지
 - 미 정부기금 운영 에이전트 자격 중지
 - 수출허가 발급 금지 등 6 개 조치 사항 중 2 가지를 취할 수 있음.
 - 동 제재 권한은 국무장관에 위임되어 있으며 국가이익을 위해 동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

4) 이란의 대응

- 엄격한 외환 통제 및 불요불급품의 수입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설비류 수입을 장려하고 있음.
- 특히 원유 수출이 총수출의 86.2%를 차지하고 있어 원유 수출선 다변화 및 비석유제품 수출 확대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1979 년 혁명 이후 대외관계는 非東非西 (NO WEST, NO EAST) 정책을 표방하고 비동맹, 중립, 친 아랍 강경 노선을 견지해 왔으나 소련의 붕괴 및 비동맹 종주국인 유고의 내전 등으로 비동맹 정책 수정하여 유럽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 및 지역협력 강화 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대 유럽 관계의 경우 "악마의 시" 저자 루시디에 대한 호메이니의 처형 명령이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나 1993.2 월 라프산자니 당시 대통령이 EU 국가 원수들에게 협력 증진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면서 이란이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루시디 처형 명령 취소를 요구한 유럽에 대해 우회적인 표현으로 화답한 이후 유럽 각국과의 관계가 호전 되었음.

- 그러나 1997.4 월 미코노스 사건으로 이란 주재 EU 국 대사의 철수 등 다시 관계 악화로 주변 이슬람 국가 및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역 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지역협력 강화의 경우 ECO 를 중심으로 대 CIS 국 관계 증진이 상당 수준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ECO 및 OIC, ASEAN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5)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이란 경제재제 조치가 발효된 1995.5 월 이후 현지화 급락, 미국 메이저 구입분 원유의 수출선 전환, 이란 보유 보잉 항공기의 수리 및 부품 조달 문제와 아울러 EU 및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의 동참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이란 경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뒤따랐음.
- 그러나, 1999 년 이후 프랑스, 독일 및 영국을 위시한 EU 각국과의 경제 교류 정상화로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한 상태임.

6) 이란 핵 개발

- 미국 및 EU 3 개국과의 팽팽한 세 대결
 - 이란 남부 이스파한에서 핵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서방세계에 접해진 후 미국 및 EU 3 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은 개발 중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외교 채널을 통해 압력을 행사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이란은 서방 세계에 핵 개발 사안이 알려진 후에도 한결같이 동 개발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간섭은 주권 침해라며 극렬히 저항하고 있음.
- UN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 2006 년 3 월 IAEA 는 이란 핵 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하였음.
 - 이어 4 월 들어 안보리는 30 일 내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의장성명 을 채택하였음.
 - UN 안보리는 7 월 말 이란에 8 월말까지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경제, 외교적 제재를 위협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이란은 안보리 5 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이 공동 제안한 인센티브 협상안에 대한 8 월 22 일 이란의 답변에서 자국의 핵 문제를 놓고 포괄적인 협상을 제안했으나, 국제사회의 핵심요구인 우라늄 농축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음

- 이란의 "핵 연료 생산은 이란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라며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미국은 UN 주도의 경제제재를 주장
- 이란과 원전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러시아나 이란과 에너지 및 경제분야에서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이견으로 인해 미국은 독자제재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한국산 수입 Proforma Invoice 승인 규제
 - 이란은 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제재하기 위해 2005.10 월 한국산 수입 Proforma Invoice 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였음.
 - 11 월부터 수입승인이 일부 재개되었으며 2006.1 월 동 조치는 완전 해제 되었으나 IAEA 등 국제 사회에서의 이란 핵 문제 추이에 따라 대이란 수출은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실정임.

나. 서방 금융기관의 대이란 거래 동향

- 2006.3 월 EIU 에 의하면 스위스 은행 UBS 및 네덜란드 은행 ABN-Amro 는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 하였고 Credit Suisse Bank 는 이란과의 거래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계 보험사 Aon Corp 는 대이란 영업 중단을 발표하였음.
- 또한 미 법무부는 상당수 은행 및 기업의 대이란 거래와 관련, 제재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이는 UBS 외에도 HSBC, SCB 및 BNP Paribas 등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란 중앙은행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6년 2월말 영국계 Lloyds Trust & Savings Bank가 이란 사무소를 폐쇄한 바, 이는 최근 정치 상황과는 무관한 것이며 UBS 및 ABN-Amro 사무소는 이미 오래 전에 폐쇄되었다고 함.

다. 2006.7월 한-이란 경제 공동위 개최 결과

- 장소 : 서울
- 수석 대표 : 한국 측 통상교섭본부장, 이란 측 광공업부 장관
- 주요 논의 결과 (합의의사록)
 - 교역 : 양측은 무역협정에 위배되는 어떠한 조치도 피할 것을 명시함.
 - 에너지 협력 : 에너지 및 산업 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운용토록 명시함.
 - 산업 협력 : 기술이전, 합작투자, 중소기업 협력 등에 노력하고 전자, 철도,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함.
 - 기타 : 금융, 문화, 농업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
- 협정 체결 :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은 2006.5 월 기 발효)

II. 경제

7. 경제정책

가. 정책 기조

1950년 석유산업의 국유화 단행 이후 이란경제는 석유부문에 대부분의 수입원을 의존해 오고 있음. 혁명 전 팔레비 정권은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 외자도입 및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비석유 부문 개발에 치중한 바 있으며, 1978년까지 5차에 걸쳐 의욕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및 농업생산 위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79년 회교 혁명 이후 이슬람정신에 입각한 사회변혁 시도와 80-88년간의 대 이라크 전쟁 기간 중 전시 체제 확립에 국력을 소진함으로써 경제개발사업 추진여건이 미약하였으나 88년 종전 후 라프산자니 대통령이 취임, 혁명정부의 의욕적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음. 간 110억\$의 외자도입을 포함, 미\$ 1,190억을 투자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 8% 등 주요 산업재건 정책을 추진 하였으나 생필품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과도한 투자지출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음. 급격한 수입증대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계획하지를 훨씬 초과 하는 급격한 외채 증대(약 300억\$)로 93년 대외 지불정지(Default)사태를 초래하기도 함.

94년 이란정부는 외환통제강화, 수입억제 등의 긴축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통해 수입 규모의 대폭 축소로 매년 40억불 상당의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 이를 외채 상환에 충당함으로써 외채축소 및 대외신인도 회복에는 성공하였으나 과도한 수입억제에 따른 투자부진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해 이란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모순을 나타냄.

97.8월 취임한 Khatami 대통령은 2001.6월 재선되었으며 기존의 경제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 및 국내생산 증대계획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고용 증대, 다중 환율체제의 단일 환율체제 전환, 경제성장률 6% 달성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제3차 경제 개발계획을 추진하였음

동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있어 투자자원 마련이 이란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 였으나, 99년 초부터 시작 된 국제 고유가 행진으로 외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란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 이란 외환수입의 85%는 석유수출액으로 충당되는데, 2003/2004년도의 경우 석유 수출액이 전년대비 약 18% 증가한 270억불 기록하였음. 특히, 그 동안 이란의 환율제도는 외환용도에 따라 공식환율, 시장 환율로 이중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002년 상반기부터 단일 변동환율제도로 변경됨. 2006. 8월말 변동환율은 U\$ 1= 9,180 리알 선향 후 이란의 경제정책 기조는 각 산업 부문의 선 자금 자족, 후 수출산업화 진전을 위한 산업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WTO가입을 위한 일환으로 점진적인 수입 법규 완화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2005년 7월 당선된 신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2005년 8월 취임 이후 본격적인 제4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서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되어 자본논리에 의지 한 경제정책보다는 사회에 복지를 늘리는 형태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나.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

2005.8월 보수강경 노선을 추구하는 신정권이 출범하였으나 아흐마디네자드 신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극단적인 경제정책이 채택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국내 경제정책의 기초는 경제사회적 정의와 지속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변화 방향은 정부, 공기업의 부패 청산, 일부 대기업이나 재벌 또는 산업에 편중된 성장보다는 극빈층, 저소득층 등 서민을 위한 경제, 농업 등 낙후부문의 균형적 성장, 소득의 재분배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

전임 하타미 대통령 집권 하에서도 보수적 최고권력층과 이미 의회를 장악한 보수파가 외국 자본 등을 활용한 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 제동을 걸고 고 실업, 고율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민생 기초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의 체제유지적 정책을 지속하여 왔는데, 일반 서민의 지지를 받는 신 정부에서도 이러한 민생위주 정책 기초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대기업 등 일부 재벌의 독점체제를 지양하고 민간 중소기업 진흥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실질적 국영 내지 국가 통제 체제인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융자와 민간 생활 지원 대출을 확대하고 있음.

경제개발은 2005.3.21부터 시행된 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 석유 수입 배분 구조 개선, 빈곤층 소득 증대 및 물가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음.

재정의 주수입원이자 국가기간산업인 석유, 가스 등 에너지부문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일부 세력의 기득권화, 외국자본의 과중한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관리 강화 및 각종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자국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2006년 들어서는 자국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장 폐쇄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어 외국 상품의 이란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 ① 2006년 4월 5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란 자국산만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② 2006년 5월 핸드폰 수입관세율을 기존 4%에서 60%로 대폭 인상하였음.

그러나, 대외경제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이란을 적대시 하지 않는 국가와는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를 지속 할 것이라고 밝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 부문에서도 자국화를 우선 으로 하되 필요한 외국 기술과 자본, 장비는 적극 활용할 뜻을 밝힌 바 있음

또한, 이란은 지난 7월 2일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 국영 기업 주식의 80%를 민간부분으로 이양할 것 임을 발표

최근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도입 목적도 있겠으나, 제정 조달 어려움 극복을 위해 외국투자의 촉진 및 국내자금의 해외로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판단 됨.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성장

- 2006 년 3 월에 종료된 2005/6 회계연도 중 이란의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 비석유 부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5.5%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 또한 실업률은 11%대로 평가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은 전년 15.2% 에서 11.1%를 기록하여 이란의 물가가 안정 국면에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5 년 12 월 이란을 방문한 IMF 경제 자문단은 이란 정부 당국이 제 4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 민간기업 활동 증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금융 개혁 등 과제를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경협 정책과 고용 창출에 더욱 주력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
- 특히 휘발유 가격에 대한 정부보조금 제도를 개혁하여 오일달러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이란 경제의 유동성 관리 및 향후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한다면 면에서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음.
- 한편, 동 자문단은 IMF 보고서 발간, 중앙은행 웹사이트를 통한 데이터 공표 등 IMF 의 SDDS(특별 데이터보급 기준)에 근거한 이란 정부의 경제 투명성 제고 노력을 치하 하면서 향후 재정 통계 및 외환 관련 수치의 투명성 강화를 요청하였음.

나. 문제점

- 이란 경제는 최근의 고유가 추세에 힘입어 고성장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리알화 약세, 오일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함.
- 특히 2010 년까지 연평균 9.9%를 목표로 운용중인 물가상승률은 이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11%를 상회하는 실업률도 이란 경제의 당면 과제인 바, 2005 년 3 월 기준 (06 년 입수 가능한 최신정보) 이란의 경제활동인구는 총인구 6,860 만 명 중 약 31%인 2,160 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란 중앙은행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 실업률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란 경제는 2001 년도에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유가하락, 미 테러사태 및 아프간 사태에 따른 지역정세 불안정으로 성장률이 둔화된 적이 있으나 이후 6%대의 성장세 유지.
- 그러나, 상기와 같은 이란정부의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석유의존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비효율적인 경제운용도 개선되고 있지 못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 실업 및 고물가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과도한 정부보조금 축소, 민영화 가속, 관료주의 및 부패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이 과제.

9. 주요 산업 동향

가. 개황

이란의 산업화율은 약 45%로 중동 제 1의 산업국으로 꼽히고 있으나 산업수준은 SKD 수준의 단순조립 단계. 현재까지는 품질보다는 생산량 확대에 주력해왔으나 향후 자국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수출 산업 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산업 분야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림수산업이 13.5%, 석유가스산업 15.1%, 광공업 20.1%이고 서비스업이 51.3%, 건설업이 4.0%임. 또한 산업 분야별 피고용 인구 분포도를 보면, 농업 27.6%, 제조업 46.6%, 서비스업 46.6%, 기타 5.8%임.

이란 산업부문의 약 70%가 정부소유 또는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영 기업이 갖고 있는 효율성 및 생산성 저조라는 한계점에 봉착한 상태. 이란정부는 국영기업 부문의 민간 이양을 제3차 경제개발 계획(2000.3-2005.3)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수립, 추진해왔으나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란 정부는 석유의존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수입대체 산업 육성과 수출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계류, 철강, 석유화학 부문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이란은 자국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대부분 원유수출이나 외국인 투자유치로 조달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국제원유가 상승에 힘입어 완전한 성장기조 (실질 성장율: 6-7% 대)를 나타내고 있음.

국제유가 강세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에 힘입어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실현되어 이들 산업은 향후 2년 내에 자급자족 수준을 뛰어넘어 수출 산업화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나. 석유화학 산업

타이어, 플라스틱 용기, 섬유, 페인트, 세제, 접착제, 화학비료 등 제품과 중간재를 망라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이란이 가장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 분야임

이란은 원유에 편중된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자 석유화학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과거 5년 동안 외국자본 117억불을 투자하였으며 그 결과 생산과 수출이 증가일로에 있음.

2005년 동 분야의 생산량은 3,880만 톤에 달해 세계 제21위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1,640만 톤, 25억불에 달하였음.

이란 정부는 2010년까지 200억불 생산 및 2025년까지 동 업계 세계 제1위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Bandar Imam 지역에 Special Petrochemical Economic Zone을 설치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노력중임.

석유화학 제품은 이미 항공기, 자동차, 주방기구 등에서 금속 소재를 대체하고 있어 향후 시장규모가 급속히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란은 원료 조달이 용이하고 저렴한 전력 요금 등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동 분야에 US\$170-200억 투자 계획임. (동 투자금액 중 US\$120억은 정부 부문에서, 나머지는 외국 및 민간 부문에서 자원 마련)

동 분야의 핵심 기술은 독일, 영국, 이태리 등 소수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관련 핵심기술의 개발 촉진 및 라이선스 보유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쉽 구축이 필요함.

다. 에너지 산업

이란의 에너지 산업은 국영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석유 및 가스로 대표되는 이란의 에너지 산업은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점차적으로 민간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 가장 활발히 개발이 진행 되고 있는 분야는 석유 및 가스 분야.

이란은 자국 석유산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하여 오다 89년부터 석유생산 목표달성을 위해 수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외국 메이저 석유회사의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음. 이란의 국영석유공사(NIOC)는 10여 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외국 회사들에게 Buy-Back 형식으로 개방 하였으며, 96년 호르무즈 해협의 해양 프로젝트(6개) 및 페르시아만 미개발 유전(3개)을 추가 개방하였음. 이에 따라 96년 이후 영국 Peil Frichmann사, 이란 IOEC사, 프랑스Total 사 등이 Buy-Back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1) 석 유

- 원유생산량 : 800만 B/D내 비중 : 13.2%전세계중 비중 : 5.5%
- 원유 생산능력 : 900만 B/D정제능력 : 250만 B/D

2) 가 스

이란의 가스매장량은 21tr m3로서 전세계 142tr m3의 15%를 점하고 있음. 세계 2위 국가 (1위: 러시아) 2001년 기준 연간 가스생산량 약 100 Bn m3로서 대부분 내수용 임. 세계 최대의 가스 매장지역인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의 South Pars 지역에 대형 가스유전을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동 가스처리 배후시설을 Assalluyeh 지역에 건설 예정임.

< South Pars 가스전개발 개요 >

(1) 1-3단계: 프랑스 Total사가 97년 획득. 투자비: 약 20억불

(Total사(40%), Petronas사 (30%), 러시아 Gazprom사 (30%))

- 한국의 대림건설이 1단계 공사 중 On-Shore 천연가스 육상처리 시설(수주액 1억 4천 만 불) 공사를 99.7.15. 프랑스 Total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2002년 공사 완료. 삼성

중공업은 1단계 공사 중 Off-Shore 해양설비 건설(수주액 약 1억불) 공사를 99.7.18. 프랑스 Total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2002년 중 공사 완료

- 한국의 현대 건설은 2 ~ 3단계 공사 중 On-Shore 부분인 천연가스 처리시설 건설(수주액: 9억 5천만 불, 4개 Trains, 일산 20억 cubic feet)을 99. 4월 수주. 2002년 초 공사완료. 가스 송수관 건설(수주액: 1억불, 105km 가스수송관 건설) 공사는 99. 8.24 수주하였으며 2002년 초 공사 완료

(2) 4 - 5단계 (천연가스 육상처리시설건설)

- 발주처 : 프랑스 Total Fina Elf社
- 공사금액 : 16억불
- 공사내용 : 일산 20억 입방피트 천연가스 처리시설
- 참여업체 : 현대건설이 2002.9월에 수주

(3) 6 - 8단계

- 발주처 : Petro Pars
- 공사금액 : 12억불
- 공사내용 : 일산 12만 배럴의 농축가스 및 12만 8천 입방미터의 메탄가스 처리시설
- 참여업체 : 대림컨소시엄단(일본 Toyo, 한국 대림, 이란 IDR0)

(4) 9 - 10 단계

- 발주처 : Pars oil & Gas Company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 공사내용 : South Pars 해상가스전을 개발하여, Assaluyeh에서 처리시설공사
- 공사금액 : 12억불
- 참여업체 : GS 건설이 2002. 4월에 수주

라. 석유류 산업

이란의 석유산업은 고용인원이 11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산업임. 그간 석유류 완제품의 경우 국제입찰방식에 의한 정부구매를 제외하곤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된 탓에 연간 수요의 30% 이상이 두바이를 통해 밀수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될 정도로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저조함. 최근 석유류 수입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져 편법적으로 수입되던 물량의 대다수가 공식 수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석유기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편직기 중 약 50%가 노후화되어 대체수입의 불가피성과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의 본격 추진에 따라 기계류의 수입을 장려하고 있어 석유제조기계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재국 생산기술이 낙후하여 생산실적은 전무. 연간 4천만불 규모로 추정되는 직기류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003년 하반기부터 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출산업화로 발돋움하기 위해 일본의 니치멘사와 공동으로 석유산업 현대화 계획에 착수하고 있으나, 중국 및 인니 등 저가제품과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향후 산업전망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임. 최근 들어 저가 중국제품의 유입 확대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가동률도 현저한 둔화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마. 자동차 산업

이란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력 향상 및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의 현지 합작공장 설립을 국책사업으로 육성해왔으며 1995년부터 2003.8월말까지 완성차 수입금지 조치를 병행하여 옴. 그러나 2003.9.1일부로 완성차 수입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 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입차 부과 관세를 100%로 낮추어 일본, 한국, 프랑스 등의 자동차 회사에서 본격 적으로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상황.

현지에서 조립생산 되는 차종은 PEUGEOT(프랑스), PRIDE(한국), 무쏘(한국), 베르나(한국), 리오(기아), 맥시마(일본) 등이 있음. 2002년도에 53만대 정도가 생산되었으며 이중 65%는 IRAN KHODRO사, 24%는 SAIPA(기아 프라이드 현지조립생산), 13%가 합작법인 및 현지기업에 의해서 생산됨. 2003년에는 약 75만대, 2004년에는 90만대, 2005년에는 약 100만대가 생산되었음. 이란의 승용차 보유대수는 공식 집계 가 되지 않고 있으나, 업계 추산 자료에 의하면 약 550만대의 자동차가 운행 중이며 이중 70%가 90년 이전 모델로 노후화되어 대체 수요가 매우 큰 상태임. 최근 이란은 가장 오래된 모델인 Paykan 을 노후 및 환경문제로 생산을 중단하였음.

이란의 자동차 및 부품의 주요수입대상국은 프랑스, 한국, 일본, 독일 순 임. 이중 프랑스, 한국은 이란과 합작공장을 설립, 자동차 부품의 지정수입 전략 구사하고 있음. 정책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완성차의 수입 금지 및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의 현지투자 진출을 장려하고 있음.

이란정부는 2006년 이란 회계연도 내에 자국 생산대수가 연 110백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 으 며, 향후에는 그 동안 지속되어 왔던 자동차 공급부족에서 공급과잉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입차 등의 시장진출로 차량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이란의 주요 자동차 회사는 최근 자체 차량 판매가를 일부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 하였으며, 앞으로는 인근지 수출 강화 등 새로운 자동차 패러다임에 적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금년 상반기 시리아와 이집트에 이란의 자체생산 차종인 Samand와 우리나라 기아의 Pride 승용차 합작생산공장 설립계약을 체결하여 인근국에 대한 KD형태의 자동차 수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또한, Iran Khodro 사는 자체 생산하는 Samand 자동차 3만대를 2007년부터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기로 합의(CKD 수출), 중국의 800cc급 자동차도 이란에서 조립 생산 할 계획에 있음.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웹사이트

- www.parstimes.com
- www.eiu.com
- www.middleeasttenders.com
- www.meed.com
- www.meedprojects.com

나. 신문

- Iran Daily (영어)
- Tehran Times (영어)
- Iran News (영어)
- Hamshahri (현지어)
- Daily Economic news(현지어)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이란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GDP (US\$십억)	84.8	116.3	133.8	161.4	175.6
실질 GDP 성장률 (%)	3.7	7.5	6.7	5.6	5.8
소비자물가 상승률 (%)	11.3	14.3	16.5	14.8	13.5
인구 (백만 명)	67.0	67.6	68.2	68.8	69.7
상품 수출 (US\$십억)	23.9	28.2	34.0	44.4	53.9
상품 수입 (US\$십억)	18.1	22.0	29.6	36.6	42.5
경상수지 (US\$백만)	5,985	3,585	816	3,989	6,567
외환보유고 (US\$백만)	16,616	21,409	24,427	32,709	39,809
외채 (US\$십억)	7.5	9.1	12.1	16.8	18.1
환율 (US\$1당 1 IRR)	7,921.5	7,958.1	8,281.5	8,724.6	9,020.4

자료원: EIU

주: 이란중앙은행 발표에 의하면 2006년 1월말 외환보유고는 454억불이며 2004/5년 회계연도. 오일달러 유입은 상기 보유 외환보유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12. 무역통계

이란의 총수출입 추이

(단위: US\$백만)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수출	23,904	28,237	33,991	44,403	53,907
총수입	18,129	22,036	29,561	36,639	42,501

자료원: EIU

주: 2005년은 EIU 추정치

□ 주요 국별 수출입

- 이란의 경우 수출입 통계가 평균 2년 정도 지나 발표되는 관계로 주요 교역국과의 최근 수출입 통계 입수에 다소 시차가 있음.
- 그러므로, EIU 분석에 따른 2004년 주요 교역 대상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이란의 주요 수출 대상국 >

1. 일본 (18.5%)
2. 중국 (9.6%)
3. 이태리 (6.0%)
4. 남아프리카공화국 (5.8%)
5. 한국 (5.8%)

< 이란의 주요 수입 대상국 >

1. 독일 (12.3%)
2. 프랑스 (8.4%)
3. 이태리 (7.8%)
4. 중국 (7.5%)
5. UAE (7.3%)

○ 한편, 이란 관세청 수출입통계의 경우 2006년 8월 기준으로 2003/4 회계년도 통계가 최근치이며 2004/5 회계년도 통계는 하반기 발표될 예정임.

이란의 주요 국별 수출

(단위: US\$천)

국 명	2001/2002	2002/2003	2003/2004
UAE	444,351	641,153	753,840
Germany	354,332	312,479	288,856
Azerbaijan	248,847	313,574	250,144
Japan	126,728	238,719	236,560
Iraq	101,562	145,165	217,714
China	169,976	177,099	198,310
India	152,523	187,011	189,225
Italy	191,443	191,526	156,556
Afghanistan	-	-	150,091
Pakistan	64,586	86,987	141,888
Kuwait	74,306	105,968	134,968
USA	98,693	107,520	132,229
Turkey	165,529	-	102,672
Spain	52,741	78,005	98,963
KSA	88,263	67,648	93,366
Turkmenistan	87,217	75,509	88,383
Russia	68,495	58,931	73,220
Uzbekistan	81,418	82,523	69,558
Singapore	-	-	65,734
Hong Kong	-	72,795	64,011
기 타	1,191,830	1,281,432	1,102,141
Total	3,762,840	4,224,044	4,608,429

자료원 : 이란 관세청 수출입통계

주1 : 상기 수출통계는 석유수출 제외 실적

주2 : 이란의 회계연도는 전년 3.21-익년 3.20일간

이란의 주요 국별 수입

(단위: US\$천)

국 명	2001/2002	2002/2003	2003/2004
Germany	1,504,244	1,806,854	3,777,317
UAE	1,153,988	1,632,982	2,152,151
Swiss	326,670	435,435	1,988,600
Italy	855,995	996,091	1,388,658
France	617,364	1,109,072	1,318,260
China	565,419	886,839	1,046,230
South Korea	736,604	957,930	893,705
Russia	919,944	913,673	874,129
Brazil	537,623	896,411	843,171
UK	509,547	666,139	768,559
India	-	560,781	716,812
Japan	683,615	787,309	714,298
Belgium	426,215	440,260	395,987
Turkey	233,066	290,648	368,781
Australia	402,968	455,146	356,942
Sweden	309,809	377,263	350,301
KSA	-	221,540	334,778
Singapore	-	158,956	320,999
Holland	270,083	345,990	308,117
Spain	342,921	307,736	299,873
Others	3,950,790	3,379,720	3,057,521
Total	14,346,865	17,626,775	22,275,189

자료원 : 이란수출입통계, 각연호, 이란관세청

주 : 이란의 회계연도는 전년 3.21-익년 3.20일간

□ 주요 품목별 수출입

- 이란의 주 수출품목은 석유이나, 이란 정부는 수출통계 발표시 석유 수출을 제외하고 발표
- 품목별 수출입 통계 역시 2003/4 회계년도 수치가 최근 것으로 2004/5 회계년도 통계는 하반기 발표 예정

수출

(단위: US\$천)

구 분	2001/2002	2002/2003	2003/2004
Hand-Made Carpet	619,496	552,834	514,264
Pistachio	318,580	373,728	497,902
Gas (propane)	108,630	146,876	128,440
Gas (Butane)	53,158	87,369	96,290
Aluminum	31,775	-	90,096
Bitumen	60,843	44,335	84,219
Currant	55,026	58,994	75,009
Steel & Iron Ingot	-	35,274	72,055
Benzene	56,785	64,905	68,524
Iron Sheet	68,753	36,644	67,202
Chick Pea	40,797	71,619	63,424
Saffron	43,580	51,346	59,085
Hydrocarbon derivatives	66,422	77,023	52,684
Semi Finished Iron & Steel products	101,605	58,405	52,296
Leather	31,216	43,168	48,096
Tyner	31,722	40,727	43,728
Per halogen derivatives	-	36,554	43,632
Carpet (non-textile)	39,106	-	40,859
Gas (from oil)	34,890	163,517	40,375
Oil derivatives	44,970	36,554	37,857
기 타	1,955,486	2,244,172	2,432,389
Total	3,762,840	4,224,044	4,608,429

자료원 : 이란관세통계, 각연호, 이란관세청

주: 이란의 회계연도는 전년 3.21-익년 3.20일

수 입

(단위: US\$천)

구 분	2001/2002	2002/2003	2003/2004
Auto Parts	418,540	481,279	2,095,794
Gold Metal	-	-	1,476,048
Oil & derivatives	226,419	513,015	997,353
Vehicle Body	205,777	496,538	446,479
Wheat	739,015	923,792	375,676
Soya Oil	293,062	305,630	364,768
Steel & Iron Ingot	216,688	200,520	328,005
Rice	339,118	190,120	292,007
Engine Parts	-	188,850	258,400
Converters	-	-	223,072
Corn	151,488	229,115	220,213
Soya	115,963	187,542	195,891
Engines	123,980	128,477	165,439
Mechanical Machinery	130,835	189,711	163,779
Soya Seed	128,298	128,356	151,627
Gas Turbine	143,109	177,856	133,711
Electronic Sender/receiver	126,824	156,118	132,018
Paper & Cardboard	185,096	109,946	131,639
Cigarettes	105,293	129,767	122,850
Sugar	208,981	215,668	118,471
기 타	10,488,379	12,674,475	13,881,949
Total	14,346,865	17,626,775	22,275,189

자료원 : 이란관세통계, 각연호, 이란관세청)

주: 이란의 회계연도는 전년 3.21-익년 3.20일

< 대이란 수출입 현황(2006. 9월) >

1. 개요

- 2004년 전년대비 증가율 20%의 호조세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2005년 들어 이란 신정권 출범에 따른 투자 유보 심리 및 한국산 수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 수준인 21억불에 머물렀음.

- 그러나, 2006년 들어서는 9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17.5%의 증가세로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가율 14.7%를 상회함으로써 이란 핵 문제의 영향을 아직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대이란 수입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2005년 45% 증가에 이어 2006년에도 9월말 기준 49%의 증가율을 보여 19억불에 가까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이란은 우리나라의 제30위 수출 대상국으로 수출 비중 0.8%이며 수입 면에서는 제15위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입 현황

(단위:US\$백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1-9월
수출	1,778 (44.9%)	2,134 (20.0%)	2,141 (0.3%)	1,856 (17.5%)
수입	1,845 (38.1%)	2,435 (32.0%)	3,535 (45.2%)	3,714 (49.4%)
무역수지	△67	△301	△1,394	△1,858
교역규모	3,623	4,569	5,676	5,570

자료원 : KOTIS

2.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US\$천)

품목	2005년	2006년 1-9월
철강제품	486,130 (55.6%)	465,559 (40.9%)
* 냉연강판	139,582 (4.0%)	175,344 (105.7%)
* 중후판	57,233 (766.3%)	54,709 (140.9%)
* 철강재용기	20,149 (138.6%)	36,423 (97.8%)
* 열연강판	85,603 (533.0%)	53,039 (△23.7%)
수송기계	285,147 (△21.6%)	312,652 (50.2%)
* 자동차부품	196,174 (△3.9%)	225,550 (71.1%)
* 승용차	46,692 (65.4%)	62,288 (45.7%)
* 화물자동차	30,530 (△7.1%)	23,210 (△13.4%)
가정용 전자제품	221,197 (△30.9%)	217,739 (22.6%)
* 냉장고	66,459 (△16.8%)	87,071 (58.9%)
* 칼라TV	65,898 (△15.1%)	46,731 (△1.9%)
* 에어컨	35,677 (△25.9%)	24,949 (△26.9%)
* 진공청소기	14,656 (△48.0%)	16,464 (29.1%)
석유화학제품	303,038 (△2.3%)	207,329 (△16.0%)
* 합성수지	239,963 (△1.5%)	162,475 (△18.6%)

종이제품	70,301 (△10.2%)	87,374 (68.6%)
* 인쇄용지	42,368 (△15.9%)	52,959 (61.1%)
산업용 전자제품	65,442 (9.1%)	86,821 (85.7%)
* 계측기	27,119 (21.1%)	22,445 (17.6%)
* 자동제어기	6,184 (957.1%)	23,876 (435.1%)
* 컴퓨터부품	5,530 (△24.9%)	14,343 (196.6%)
산업기계	110,228 (6.4%)	66,632 (△23.5%)
* 화학기계	25,068 (82.0%)	14,166 (△24.5%)
* 건설중장비	36,744 (25.6%)	22,151 (△26.2%)
기초산업기계	102,809 (39.2%)	63,333 (△8.3%)
* 공기조절기	25,506 (150.4%)	23,431 (56.0%)
* 가열난방기	36,722 (△3.1%)	17,149 (△40.5%)
전자부품	63,482 (△16.8%)	47,748 (1.4%)
* 음극선관	41,928 (△20.0%)	23,534 (△24.3%)
정밀화학제품	47,520 (△3.0%)	42,579 (23.3%)
* 기타정밀화학원료	12,793 (△22.2%)	18,801 (78.3%)
* 의약품	18,312 (△0.5%)	10,180 (△16.3%)
* 연초류	30,564 (△31.9%)	26,757 (2.2%)
* 폴리에스테르섬유	17,961 (△25.0%)	24,324 (78.8%)
* 기타 동제품	12,608 (△12.2%)	13,667 (8.4%)
* 기타 플라스틱제품	17,705 (37.0%)	14,050 (1.0%)

- MTI 2단위 기준 대이란 10대 수출 품목은 철강제품, 수송 기계, 가정용 전자제품, 석유 화학제품 등으로 집계됨.
- 철강제품의 경우 자동차 제조용 강판을 중심으로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9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1%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냉연강판, 중후판 및 철강재 용기의 신장세가 두드러짐.
- 수송기계 부문에서는 자동차부품 공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완성 승용차도 수입관세율 인하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가전제품의 경우 2005년 31% 감소의 부진세를 보였으나 2006년 들면서 냉장고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 9월말 기준 2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석유화학제품은 전체적으로 다소 부진한 가운데 PE수지 및 저밀도 에틸렌은 호조세를 보인 반면 폴리프로필렌 및 고밀도 에틸렌은 부진세를 보였음.
- 한편, 기계류 부문에서는 공기조절기를 제외하고는 전품목에 걸쳐 부진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 역시 이란 핵 문제의 영향으로 장기 투자를 꺼리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3.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US\$천)

품목	2005년	2006년 1-9월
원유	3,280,264 (52.1%)	3,360,764 (43.7%)
LPG	119,145 (△7.5%)	247,410 (297.8%)
기타 석유화학제품	53,857 (6.3%)	44,912 (△0.1%)
과실류	14,686 (51.2%)	2,500 (△26.0%)

- 대이란 수입은 원유가 대부분으로 그 비중은 2004년 89%, 2005년 93%, 2006.1-9월 90%로 나타남.
- 이는 고유가 추세에 의한 것으로 2006년 1-9월 기간 중 대이란 원유 수입액은 33억불을 상회하여 전년동기대비 4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기타 2006년 들어 이란산 LPG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과실류 수입은 감소세로 돌아섰음.

13. 투자통계

-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대이란 외국인투자는 총 6억7,400만불에 달하였음.
- 이란 광공업성에 의하면 동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면에서는 50%, 금액 면에서는 14.5% 증가한 것이며 그 중 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총 27건에 3억8,270만불로 57%의 비중을 보였음.
- 그러나, 이란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통계에는 Buy Back 프로젝트 등 이란으로 유입된 외국 자본을 총망라하고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즉, UNCTAD 통계에 의하면 2004년 이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5억불로서 2002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이는 조사 대상 140개국 중 130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며 외국인투자 잠재력 면에서는 57위로 나타났음.
- 참고로 이란 경제성(Ministry of Economic) 에 의하면 2005년도 주요 투자국은 남아공, 사우디, 오스트리아, UAE, 바레인, 이태리, 영국 등 임

이란의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단위: 미\$ 백만)

분 야	1999/2000이전	20001/2002	2002/2003	2003/2004
산 업	3,993	530	1,040	1,660
광 업	188	46	112	240
농수산	6	-	22	32
기 타	160	29	56	168
합 계	4,347	605	1,230	2,100

자료원 : 이란중앙은행

주 : 06년 입수 가능한 최신통계임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개황

- 대체로 4계절이 있는 대륙성 기후이나 남부 지방은 아열대성 기후, 북부 카스피해 지역은 고온다습하며 우리나라 기후와 흡사함.
-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방대한 국토를 보유한 탓에 지역별로 일교차가 50도에 달할 정도로 기온차가 심함.

나. 테헤란 지역의 기후

- 수도 테헤란은 해발 평균 약 1,500m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간 강수량은 255mm 정도로 건조하며 4계가 뚜렷하고 겨울에는 폭설이 잦은 편임.
- 테헤란의 기후는 계절별로 서울과 흡사하나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서울보다는 기온이 높으며 하계의 경우 기온은 높으나 건조하여 직사광선만 피하면 서울보다 견디기가 용이함.
- 가장 더운 달은 7월로 평균기온 22-37도, 가장 추운 달은 1월로 영하 3-7도임.
- 가장 건조한 달도 7월이며 평균강수량 3mm, 가장 습한 달 역시 평균강수량 46mm의 1월임.
- 참고로 테헤란의 겨울은 우기로 많은 눈이 내리며, 이때 내린 눈을 저장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 이란과 우리나라 사이의 시차는 5시간30분으로 서울 아침 09:00은 테헤란 새벽 03:30임
- 매년 3월21일부터 9월20일 기간에는 서머타임이 적용되므로 한국과의 시차는 4시간30분, 즉 서울 아침 09:00은 테헤란 새벽 04:30임.
- 2006년의 경우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아 한국과의 시차는 5시간30분이 유지되고 있음.

나. 근무시간

- 일반 직장의 평일 근무시간은 08:30-16:30 이 일반적임.

- 2006년의 경우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4월부터 9월까지 출근시간을 30분 당긴 업체 및 기관이 다수 있음.
- 대사관 및 KOTRA의 경우에도 상기 기간 중 08:00-16:00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음.
- 목요일에는 대체로 오전 근무만 하나 최근에는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추세임.
- 관공서도 동일하나 목요일의 경우 대다수 휴무임.
- 은행 근무시간은 토-수요일 09:00-16:30 이나 실제 업무는 15:00까지만 함.
- 일반 상점들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오전 09:00-12:00 및 오후 16:00-21:00임.

3. 도량형

- 도량형 : 미터법
- 전기 : 220V 50Hz
- 회계연도 : 3월 21일-익년 3월 20일

4. 출입국/비자

가. 입국/비자

이란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비자가 필요함. 단,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인은 사증 면제 각서교환으로 비자가 면제되며 30일 이내 체류가 가능함. 관광 및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1개월 체류비자가 발급되고 있으며, 입국후 2회에 걸쳐 연장 가능.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현지 바이어가 이란 외무성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송부한 초청장 첨부이 의무화 되고 있음.

* 유의사항

- 주한 이란대사관에서의 이란 입국비자 발급은 3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
-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
(이스라엘 입국시 별지에 스탬프를 받는 방법이 있음.)

1) 비자 발급처

- 주한 이란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126
 - 전화: (02)723-7751/3
 - 팩스: (02)792-7052/3
 - 공휴일: 토, 일 및 이란 국경일

2) 구비 서류

- TOURIST VISA(대사관 소정 신청서 2부, 증명사진 3명)
- ENTRY VISA(상용 비자)
 - 대사관 소정 신청서 2부-상공회의소 회원업체 증명서

- 이란 바이어 발급 초청장(영문 및 페르시아어 각 1부, 이란 외무부 고시양식에 의거 작성)항공권 출장 증명서(출장업체 발행) - 증명 사진 3매
- 여성의 경우 증명사진은 머리에 스카프를 착용하여 머리카락을 완전히 가리고 촬영해야 함.
- 이란 입국시 미\$10,000 이상을 소지한 경우, 입국시 공항에서 보유외환을 신고해야함. 향후 출국 시 외화자금 반출을 위해서는 입국시 신고한 자료가 필요
- 취업 또는 파견근무의 경우는 Work Permit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함. 여성의 경우 공항 도착시부터 출국시까지 Long Coat 및 Scarf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이슬람국가인 관계로 술, 돼지고기, 음란비디오 및 잡지 등은 반입 불허. 또한, 골동품은 반출이 불허되나, 카펫은 1인당 1장(2m3m) 씩 허용됨. (영수증 필히 지참)

3) 공항 입국 비자

- 이란공항에서 아래와 같은 Arrival Visa 발급 가능
 - 관광비자 : 일주일 유효, 발급시 100\$ 이내의 수수료 지급
 - 응급비자 : 72시간 유효, 발급시 이란업체 신청서, 사진 1매, 100\$ 이내 수수료 지급
- 상기 비자의 경우 현지 상황에 따라 발급 여부가 매우 가변적으로 가능한 주한국 이란 대사관에서 정식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함

4) 예방접종

-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한 방역의무 사항은 없음.

5. 환율/환전

가. 화폐 및 환율

- 화폐 단위 : Rial (공식 단위는 아니나 10 Rial에 해당하는 Toman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화폐 종류 : 지폐로는 100, 200, 500, 1000, 2000, 5000, 10000, 20000 Rial권이 있으며 동전은 100, 250 Rial 등이 있음
- 환율: US\$ 1 = 9,180 Rial(2006.8월)

나. 유의사항

- 이란인 및 거주 외국인의 해외 출국시 공식적으로 은행에서 환전 가능한 금액은 1인당 US\$ 3,000임.
- 국외에서 유입된 외환은 자유로이 반출이 가능하나 입국시 공항에서 입국 심사대 (Passport Control) 이전에 위치한 은행에서 반입 금액 신고를 전제로 함.
- 환전은 원칙적으로 은행 및 공식 환전소 이용이 의무적이며, 환전시 여권을 제시 해야 함.
- 사용하고 남은 현지화는 공항에서 재환전 할 수 있으나 최초 환전시의 영수증이 필요함.
- 암시장 환전도 가능하나 환차손을 감수해야 함.

6. 물가정보

□ 도시: 테헤란(이란)			- 환율 : US\$1 = RIs9,18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470	7.1	구두(1켤레, 소가죽)	30
1.2	넥타이(1개, 실크100%)	70	7.2	치약(150g, 1개)	1.7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35	7.3	칫솔(1개)	2.5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2	7.4	면도기(1세트)	4.2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200	7.5	건전지(1세트, 1.5V AA)	2.2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2.7	7.6	화장지(1통, 300매)	0.9
1.7	청바지(Levi's)	70	7.7	비누(1개)	0.8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6.5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없음	8.2	볼펜(12개)수입산	15
2.3	닭고기(1KG, 생닭)	2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5
2.4	쌀(1KG, Short Grain)	1.6	8.4	공CD(1통, 12개입, 700MB)	5
2.5	밀가루(1KG)	1.33	8.5	휴대폰(범용형)	170
2.6	설탕(1KG, 백설탕)	0.8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30
2.7	계란(10개)	0.9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30
2.8	감자(1KG, 현지산)	0.44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42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0.25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16,700
3.1	고추장(1Kg)	없음	9.2	엔진오일(1L)	2.5
3.2	된장(1Kg)	없음	9.3	휘발류(1L)	0.88
3.3	라면(1개)	없음	9.4	자동차등록비(2,000cc)	220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등)	없음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250
3.5	불고기(1인분, 200g)	없음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없음	10.1	지하철(1구간)	0.07
3.7	김치찌개(1인분)	없음	10.2	시내버스(1구간)	0.022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2
4.1	햄버거(1개)	2	10.4	택시(추가요금/Km)	0.4
4.2	피자(1판)	5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44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150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없음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8
4.5	담배(수입산, 1갑)	1.6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016
4.6	위스키(1병, 750ml)	없음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011
4.7	커피(1병, 175g)	7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2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04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80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이하, 현지-서울)	1.8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4,20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이하, 현지-서울)	7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5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없음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04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1
6.1	TV(29인치, 칼라, 범용)	1,050			
6.2	VTR(6헤드, 범용)	77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30			
6.4	전자레인지	200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600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250			

□ 도시: 테헤란(이란)			- 환율 : US\$1 = RIs9,180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8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	120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150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급여대비%, 연간)	7%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3,8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4,5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6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5,550	18.6	연간국경일	20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휴무(실시여부)	미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51	18.8	노동쟁의시 냉각기간일수	30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없음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4 시간
13.3	골프공(1타)	없음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없음	19.1	법정최저자금	110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없음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6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0.7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25%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30%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280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4%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7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3.5			
14.4	치과(스켈링, 1회)	33			

14.5	약품(해열제,아스피린,10정)	0.15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현지유력지)	2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기본시청료)	없음			
15.4	잡지(1부,Time 혹은 Newsweek)	3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 시내중심지)	155			
16.2	특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 시내중심지)	135			
16.3	중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 시내중심지)	100			
16.4	중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 시내중심지)	없음			
16.5	조식(특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7			
16.6	조식(중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5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급여, 대졸초임)	280			
17.2	사무실비서(월급여, 학력불문)	200			

7. 교통/통신

가. 우리나라와의 교통

한국-이란간 직항로는 2002. 12.20일 개설되었으며, 직항로 외에 주로 이용하는 한국-이란간 항공노선은 하기와 같음

- 서울 - 테헤란(직항)
- 서울 - 도쿄- 북경- 테헤란
- 서울 - 이스탄불 - 테헤란
- 서울 - 두바이 - 테헤란
- 서울 - 방콕 - 테헤란
- 서울 - 방콕(또는 싱가포르) - 두바이 - 테헤란
- 서울 -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 테헤란

* 항공 운임은 약 US\$ 900 ~ 1,200 수준임.(이코노미석 기준)

인천-테헤란 간 직항선은 이란항공(IR)이 취항하고 있으나 주 1회뿐이어서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노선은 두바이 경유 항공편으로 에미레이드항공(EK)에서 매일 운항하고 있음.

나. 국내교통

버스(이용료: 250리알)등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여 테헤란의 경우 승용차 및 택시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택시는 길거리 아무데서나 잡을 수 있고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타는 모스타킴 택시(약 1,000리알)와 콜택시가 있음.

현지 출장자의 경우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이용 요금은 약 30,000 리알(US\$ 3-4수준)이며 호텔 및 식당 등 어느 장소에서나 콜택시 호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호출 후 10분 이내에 도착함.

테헤란 시내의 대표적인 콜택시 회사중의 하나는 전화(8840-011/20)이며 시내 어느 곳에서나 호출 가능함.

이란의 국토는 한반도 면적의 7.5배에 달할 정도로 광대하여 지방 출장의 경우 항공편을 이용하게 되는데 최근 비행기 사고가 많아 주의를 요함.

특히 이란의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영향으로 노후한 러시아산 군용기를 국내 민항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 출장 항공권 예약시 기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음.

다. 국제통신

이란의 국가번호는 "98", 테헤란의 지역번호는 "21"번임. 현지에서 한국 통화시 00-82 (국가번호)-2(서울 지역번호)-해당전화 번호를 호출하면 되나 현지의 회선부족으로 국제 전화가 원활히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요금은 한국보다 다소 저렴한 편으로 서울-테헤란간 통화시 분당 약 1\$수준임.)

라. 국내통신

병원 등 공공시설을 제외하곤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하기가 여의치 않으며, 여행시 시내 통화를 해야 할 경우 근처 가게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음.

사용요금은 10 RLS 이나 일반적으로 100 RLS 동전을 사용함. 이란의 공중전화는 국제통화 불가함.

8. 호텔/식당

가. 호텔

주요호텔

호텔명	등 급	연 락 처	가 격
Azadi Hotel	5 Star	* 전화 : 98-21) 2207-3021/9 * 팩스 : 98-21) 2207-3038	* Twin(Double) : \$ 160 * Single : \$ 139
Esteghlal Hotel	5 Star	* 전화 : 98-21) 2204-0011/5 * 팩스 : 98-21) 2204-7041	* Twin(Double) : \$ 146 * Single : \$ 117 * 서쪽 타워 기준 금액임
Homa Hotel	5 Star	* 전화 : 98-21) 8877-3021/9 * 팩스 : 98-21) 8879-7259	* Twin(Double) : \$ 143 * Single : \$ 143
Lalleh Hotel	5 Star	* 전화 : 98-21) 8896-6021/9 * 팩스 : 98-21) 8896-5599	* Twin(Double) : \$ 134 * Single : \$ 118
Grand Hotel	4 Star	* 전화 : 98-21) 8872-1656 * 팩스 : 98-21) 8871-3857	* Twin(Double) : \$ 85 * Single : \$ 58

주: 호텔별로 조식포함 여부 및 서비스 요금, 세금 등이 각기 상이. 투숙시에는 호텔 또는 무역관을 접촉, 최종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역관 예약시 15%-20%선 할인가능

한국인 운영 게스트 하우스

호 텔 명	연 락 처	가 격
벳세다한인의집	* 전화 : 98-21)8873-2126 * 팩스 : 98-21)8873-1702	\$ 80 - 조식식(한식) 및 세탁 - 공항 픽업 서비스 포함
우리집	* 전화 : 98-21)2205-3799 * 팩스 : 98-21)2205-2245	\$ 80 - 조식식(한식) 및 세탁 - 공항 픽업 서비스 포함
인터카라스	* 전화 : 98-21)8878-9288 * 팩스 : 98-21)8878-9274	\$ 80 - 조식식(한식) 및 세탁 - 공항 픽업 서비스 포함
한국집	* 전화 : 98-21)2205-8739 * 팩스 : 98-21)2205-1274	\$ 80 - 조식식(한식) 및 세탁 - 공항 픽업 서비스 포함

나. 이란 주요 식당

- 테헤란 시내에 이란의 전통음식인 케밥(Kabab) 식당은 즐비함. 중국식당, 일본식당, 프랑스식당, 이태리 식당 등도 다수 있으나 이란인 요리사가 조리를 하는 관계로 맛과 질은 기대 이하임.
- 최근 Fatemi 중식당이 중국인 주방장을 고용하여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지방에는 케밥(Kabab) 식당뿐이며 외국 식당은 거의 없음.
- 이란에 외국식당이 부재한 이유는 주재국 정부가 외국인에 의한 식당 등의 서비스 산업 참여를 불허하고 있는 때문임.
- 중국식, 일본식, 태국식, 베트남식등 다양한 아시아 요리를 제공하는 Monsoon은 무역관이 위치한 중심가 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위치에 있으나 비교적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 추천 할만함
- 정통 이태리 식당인 boulevard는 이란에서 보기 드물게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 제공, 스파게티, 스테이크 등 추천

테헤란내 주요 외국 식당

구 분	식당명	주 소	전 화
중식	KOSA	VALIASR AVE, KHOSR-OKHAVAR ALLEY, TEHRAN IRAN	(98-21)8890-8371/2
중식	FATEMI	VALIASR AVE., OPP OF GATEMI,ABDO ALLY, NO.3 TEHRAN IRAN	(98-21)8890-0714 8880-0163
일식	SERYNA	NO.30, BIGAN STR, VANAK SQ, TEHRAN TEHRAN IRAN	(98-21)8877-3735 8877-6301
인도 식당	TAJI-MAHAL	NO.29, SOUTH SHEIKH BAHAI AVE., MOLASADRA AVE., VANAK SQ, TEHRAN IRAN	(98-21)8805-7392/8
아시아 퓨전	Monsoon	Gandi Ave.,Corner of 4 th St.,Gandi Shopping Center,#8	(98-21)8879-1982/3
이태리식	boulevard	VALIASR AVE., Nahid Blvd, #3	(98-21)22051947
중식	Golden Dragon	To Parkway Crossroad VALIASR AVE, TEHRAN IRAN	(98-21)2204 0508

- 최근 테헤란 중심로인 발리아스 거리의 잠에잠이라는 쇼핑몰 2층에 Seoul Garden 이라는 식당이 오픈하였으며, 한식을 포함, 일본식, 중국식 음식을 판매하고 있음. 이란 음식에 지친 출장자에게는 권장할 만함

테헤란내 한국 식당

한식	Seoul Garden	NO.191, Intersection of Karim-Khan Zand Flyover, Sepahbod Gharani Ave.TEHRAN IRAN	(98-21) 8884-8585
----	--------------	---	-------------------

9. 관공서 관행

가. 민원 처리

- 현지 공무원에 대한 뇌물성 선물은 엄격히 금지되나, 감사 표시의 소액 선물은 상호간 좋은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란 관공서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낮고, 일처리가 더딘 편이며 처리과정이 복잡하므로 관공서에 관련된 일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필요함.

나. 관공서 방문시 유의사항

-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국가로 상담시 종교 및 내정에 대한 비판은 삼가야 하며 외국인 (여성)의 경우에도 헤잡(스카프)을 쓰는 등 이슬람 율법을 준수 해야 함.
- 넥타이를 매는 것은 현지 관습에 어긋나 법원이나 관공서 출입 외국인에게 넥타이를 풀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10. 공휴일

가. 공휴일

- 이란은 이슬람 국가로 관공서는 목요일과 금요일 휴무하며, 일반업체는 목요일 오후와 금요일 전일 휴무. 최근에는 다수 민간기업과 국영업체들이 목요일을 전일 휴무, 주 5일 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 공휴일은 종교와 관련하여 제정되어 있고 상반기에 몰려 있어 현지 출장 시 확인이 필요 함. 또 이란의 종교공휴일은 대부분 음력을 사용, 달력에 나와있는 휴일과 실제 휴일과는 1일 전후로 변동되기도 함. 이란정부는 휴일사이에 낀 날을 하루 전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하며, 음력에 기초한 일부 종교휴일은 전날 밤 달의 모양을 보고 공휴일을 확정하기도 함.

2006년도 이란의 공휴일

일 자	공휴일 명
1.11	양잡는 날
1.19	알리의 모함마드 후계자 공인일
2.8	터쉬어(호세인 부상일)
2.9	어슈러(호세인 순교일)
2.11	회교혁명 기념일
3.20	석유의 날
3.21-24	노루즈(신년축제일)
3.29	아르바인(호세인 순교 20일째)
3.30	이맘 레자 순교일
4.1	이란공화국의 날
4.2	자연의 날
4.16	모함마드 탄생일
6.4	호메이니옹 사망일
6.5	회교혁명 시작일 기념
6.29	휘테메 자흐러 순교일
8.8	알리 탄신일
8.22	Missiona of Hazrat Amir
9.9	하자랏 가엠 탄신일
10.15	하자랏 순교일
10.25	웨트르 축제(라마단 종료일)
11.18	이맘 사데그 순교
12.31	희생제(양 잡는 날)

나. 출장 지양기간

- 이란의 신년은 공식적으로 매년3.21일부터 시작되며 신년 전후인 3.15-4.15간은 이란의 년 말 년 시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많은 개별업체들이 휴무에 들어가는 까닭에 동기간 에는 출장자체가 바람직함.
- 라마단기간(2006년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한달 이상 지속됨) 동안에는 대부분의 현지업체가 오후 2시-3시에 종료하므로 동기간 출장 희망 시는 사전확인이 필수.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출입국시 유의사항

- 공항도착시 체류신고서(소정입국카드 2부 작성)를 하여야 하며, 1부는 입국시 이민국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출국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보관에 각별 유의해야 함.
- 이란 입국시 미\$10,000 이상을 소지한 경우 입국시 공항에서 보유외환을 신고 해야 함. 입국시 보유외환을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 한도 내에서 출국시 반출 가능.
- 취업 또는 파견근무의 경우는 Work Permit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함.
- 여성의 경우 공항 도착시부터 출국시까지 롱코트 및 스카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 이슬람 국가인 까닭에 술, 돼지고기, 음란비디오 및 잡지의 경우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함. 또한, 골동품은 반출이 불허되나, 카페트는 1인당 1장(2mx3m)씩 허용됨. (영수증 필히 지참)
- 예방접종의 경우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필요 없음.

나. 의복준비

- 이란은 한반도의 약 7.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로 지역별 기온차가 심하나 수도인 테헤란 및 근교의 경우 4계절이 뚜렷하고 서울과 기온이 비슷한 까닭에 이에 맞게 의복을 준비 하면 됨.
- 테헤란 시내의 경우 겨울에도 낮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므로 두꺼운 옷의 준비가 필요하며, 여름에는 기온이 최고 46도 까지 올라가나 1,600M의 고지대로 매우 건조하여 한국처럼 무덥지 않아 여름 나기가 서울보다는 수월한 편임.
- 이란은 철저한 회교국인 관계로 여성의 경우 외국인이라도 외출시 반드시 무릎까지 내려오는 롱코트 및 스카프를 착용해 함. 미착용시는 공항에서 입국이 불가함.

다. 전기규격

- 사용 전력의 전압은 220V, 전류는 50HZ이며 100Volt용 전기기구 사용할 때에는 변압기를 사용하여야 함.

라. 치안

- 이란의 치안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소매치기 및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 이란과 아프카니스탄 및 파키스탄 국경지방은 치안이 매우 불안하여 최근에는 터키와 인접한 국경지대에서도 인종문제로 소요사태가 일어나 여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대다수 이란인은 외국인에 대하여 호의적인 까닭에 여행자의 안전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이슬람 생활규범 내지 현지관습 등에 따른 각종 금기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해야 함.

마. 택시

- 시내 어느곳에서나 택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거의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음.
- 외국인의 경우 돈이 많다고 생각하여 비싸게 부르나 통상 미화 5불이면 충분함.
- 비즈니스 출장 및 여행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호텔 및 식당 등 어느 장소에서나 콜택시 호출이 가능함.

바. 팁관행

- 시내에서 택시 이용시에는 팁을 별도로 줄 필요는 없음.
- 공항에서 포터 이용이나 택시 이용시 무거운 짐을 옮길 때 10,000리알(1불=9,000리알) 정도 주면 됨.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길 경우도 10,000리알 정도면 되며 음식점에서는 서비스료로 15-20%를 음식값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별도의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임.

사. 식수

- 이란의 수도물은 비교적 안전하나 석회석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 이란 여행시는 생수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이 권장됨.

아. 이발소 및 미용실

- 시설은 많이 떨어지나 이용에 큰 불편은 없으며 이발소는 40,000리알 (약 5불), 미용실은 45,000 리알 (약 6불)정도임.

자. 쇼핑

- 이란은 캐비어(철갑상어알), 수공예품, 페르시아 카펫으로 유명한데, 캐비어는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음. 카펫은 기계직의 경우 100불에서 1,000불 사이, 수제품은 1,000-10,000불 등 종류가 다양하며, 수공예품으로는 동판, 은세공품 등이 인기가 있음.

1) HANDICRAFTS SHOP

- Handicraft OrganizationAdd: No. 226, Nejat ollahi Ave., Tehran Iran
- 2- Handicraft OrganizationAdd : No. 663, Vali-e-Asr Sq., Tehran Iran

2) LEATHER SHOPES

- Lederly: Lederly Bldg., Gandhi St., Corner of new Highway, Vanak Sq., Tehran Iran
- Omid ShopeTel:(98-21)5563-7526Add: Mesbah St., Pachenar St., Khayam Ave., Tehran Iran
- Khazar Khaz8803-8025 Saman St., South Shiraz Ave., Mollasadra Ave., Tehran Iran

3) CARPET (HAND MADE)

- Faghihi Kashani Add: No. 42, Bazar Farsh Ave., Tehran Iran
- Kalantary Carpet Shope No. 131, Kafash ha Bazar, Big Bazar, Tehran Iran
- Najm Carpet No. 23, Kababiha Ally, Abas Abad Bazar, Big Bazar, Tehran Iran

4) CARPET (MACHINE MADE)

- Mahestan Carpet Tel:(98-21)8874-8029 Add: No. 90, Habibi Haj ssani Ally., Seyed Khandan Brdg., Tehran Iran
- Kavir Kashan CarpetAdd: No. 213, After Gas Station, North Sohrevardy Ave., Tehran Iran
- Kavir Yazd Carpet Tel:(98-21)8882-4167Add: No. 421, Opst Gas Station, North Mofate Ave. Tehran

5) GOLD & JEWELRY SHOP

- Amtist ShopAdd: No. 6, Jewelry Bazar, Mohseni Sq., Tehran Iran
- Movahed Jewelry(98-21)2222-0820 No.16, Jewelry Bazar, Mohseni Sq., Tehran Iran
- Jabarnia(98-21)2227-7263Add: Mohseni Bazar, Mohseni Sq., Tehran Iran

12. 유용한 연락처

가. 비상연락처

- POLICE(경찰서) : 129
- ACCIDENTS(사고처리) : 197
- EMERGENCY(긴급구조) : 115
- AIRPORT INFORMATION : 9111
- DOMESTIC AIR INFORMATION : 199, 66012945
- INT'L AIR INFORMATION : 199, 66012945
- RAILWAY(철도안내) : 5556114-5
- TELEGRAPH(전보) : 120
- 전화번호 확인 : 88601000, 8601515
- POST OFFICE(우체국) : 6676087-9
- GENERAL HOSPITAL
 - MEHR : 8850080-9
 - MEHRAD : 8874741-9
 - APADANA : 888270457
 - PARS : 6650051-9
 - DAY : 88785811-9

나. 한국기관

- 대사관
 - 주 소 : No. 18, West Daneshvar st., shaikhbahaei Ave. Vanak sq., Tehran, Iran.
 - 근무시간 : 08:30 - 16:30(일-목요일)
 - 공휴일 : 금,토요일,이란 공휴일- 영사업무관할 지역 : 이란 전역(영사관 개설 없음)
 - 전 화 : (98-21)8805-4900
 - 팩 스 : (98-21)8805-4899
- KOTRA 테헤란 무역관
 - 주 소 : 1STFL.,No. 33, South Atefi St., Africa Ave., Tehran, Iran P.O.BOX:11365-7877, IRAN
 - 전 화 : (98-21)2202-7003/4, 202-6976/7
 - 팩 스 : (98-21)2201-2733
 - 설립년도 : 1964년 4월 1일
- 한국인 학교
 - 주 소 : No.21.4Th St.,Bucharest Ave.,Tehran Iran
 - 전 화 : (98-21)8873-4910
 - 팩 스 : (98-21)8873-8699
 - 학생수 : 16명 (2003. 12월 기준)
 - 교 사 : 한국인 교사 3명
 - 학 년 : 1- 6학년
- 한인협의회
 - 설립일 : 1974년 1월
 - 회 장 : 조승미
 - 교민수 : 약 460명(현지 주재상사 및 공관원, 건설직원 모두 포함)
 - 전 화 : (98-21)8805-5322
- 테헤란 한인교회
 - 전 화 : (98-21) 6670-8698
 - 팩 스 : (98-21) 6672-0200
 - 주 소 : #19, Si-e-Tir Avenue, P.O.Box 11365-119, Tehran, Iran
 - 담임목사 : 박철웅 (핸드폰 : 98-912-145-2396)
 - 홈페이지 : www.tehranchurch.com
- 천주교 성당
 - 전 화 : (98-21) 6670-3210

다. 이란 정부기관

-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3211: 66706041
- 석유부(Ministry of Petroleum): 6151: 66469888
- 광공업부(Ministry of Industry& mines): 81061: 88906563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88893620-9: 8903945
- 재정경제부(Ministry of Finance & Economy): 3251

-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61311: 6653061
-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8901081-7: 88801995
- 체신부(Ministry of Post, Telephone & Telegraph): 8111: 88601131
-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r & Social Affairs): 9930031-9: 9938338
- 주택 및 도시개발부(Ministry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Tel : 88779464, 8884026: 88790162
-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s & Transportation): 66463153: 66417218
- 기획예산청(Planning & Budget Organization): 3271: 33274064
- 테헤란시청(Tehran Municipality): 88846000: 8833377

라. 정부산하기관/경제단체

- NIOC(National Iranian Oil Co.): 66412205 Fax : 66412352
- NPC(National Petrochemical Co.): 88820021 Fax : 88821726
- NIGC(National Iranian Gas Co.): 8813333-2 Fax : 88824750
- NITC(National Iranian Tanker Co.)Tel : 6671081-9, 21939, 21932453: 22228065, 2224537
- IDRO(Industrial Development & Renovation Organization)Tel : 88825921: 8832328
- ISIRI(Institute of Standard & Industrial Research of Iran)Tel : 88905305: 88802276
- IRISL(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88845061: 8837999
- IWPC(Iran Water Power Co.): 88801038-9Fax : 88907635
- Ir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 MinesTel : 88846031-9 Fax : 8882511Add : No. 254, Taleghani Ave., Tehran Iran
- Iran Int'l Exhibition co.Tel : 21911- Fax : 2205-1775Add : Vali-asr Charmran Expressway, Tehran IranBox 19395-0491, Tehran, Iran

라. 은행

- Central Bank of Iran-: 64461-: 33117916
- Bank Melli- Tel : 3231 Fax : 33916700, 3114431
- Bank MellatTel : 32491-5 Fax : 66712133
- Bank SaderatTel : 66700041-9- Fax : 66704676, 6721155
- Bank SepahTel : 33110010-9Fax : 33907168
- Bank TejaratTel : 81041-9Fax : 88828304

마. 언론

- Islamic Republic News Agency(IRNA)Tel : 8892051-9- Add : Vali Asr St. Tehran
- 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IRIB)Tel : 2160 Add : Vali Asr, Jam-e-Jam Tehran
- Iran NewsTel : 88880231-2Add : P.O Box 15115 Tehran
- Tehran TimesTel : 88809500- Add : 32 Kouchen Bimeh Nejatollahi Ave. Tehran

바. 대학

- Tehran UniversityTel : - Add : Enghelab St. Tehran
- Azadi UniversityTel : 22588168-72- Add : No. 9 Pasdaran Neyestan Tehran

사. 항 공 사

- Iran Air: 88808472, 88808475
- Alitalia: 88711512, 8871189, 88712707
- Air France: 6674111-6, 6674110
- British Air: 22044552, 22040927
- K. L. M.: 88732447, 88751630-1
- Lufthansa: 88723382-7, 88723482-7
- Swiss Air: 88809131-4, 88748332-7
- Cathay Pacific: 6670109
- E. K.(UAE Airlines): 88712700, 88716412
- Turkish Air: 88737383, 88737464
- Gulf Air: 22253274-5, 22253284-7

13. 관광명소

가. 테헤란

Tehran 이란 명칭은 Tah(아래)와 Ran(산등성이)의 합성어로서 산 아래 마을을 의미하며, 도시 북쪽에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Alborz 산맥 아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수도 테헤란은 Seljuk 왕조 때 조그만 부락이 형성된 이후 1789 년 Qazar 왕조가 수도로 정함. 1900 년대 초까지 인구 30 만의 소도시였으나 Pahlavi 왕조 이후 급격히 팽창, 현재는 인구 1,300 만이 넘는 세계적 도시로 성장. 주요 관광명소는 아래와 같음

1) Saad Abad 궁전

과거 카자르 왕의 여름 별장이었던 궁전으로 1930 년 Reza 왕이 8 년에 걸쳐 증축한 궁전, 18 개의 다양한 건축 양식을 보이며 이슬람 혁명 이후 10 개의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이란의 찬란한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고 있음

2) Green Palace

건물 외관이 녹색이라 Green place 라는 이름을 얻게 된 궁전으로 Reza 왕의 개인 접견실로 사용되었으며, Iran mirror, Persia Carpet 등 아름다운 이란의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3) Nation's palace

Reza 왕이 거주했던 건물로 2 층으로 되어있음. 응접실, 대기실, 리셉션 홀, 만찬장, 침실로 구성되었으며, 복도에 입상과 장식장의 China ware, 유럽에서 제작된 가구, 상글리에, 그림 그리고 이란 신화를 주제로 만들어진 4 개의 큰 벽장식이 볼거리 임

4) Nation's museum

이슬람 이전 작품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인도, 극동아시아, 에스키모, 마야, 현대 이란 예술 작품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음

5) Fine arts museum

팔레비 왕의 부인인 Farah 가 영국인 수집가로부터 사들인 이란의 고대 왕조 때의 유화가 볼거리. 3 층을 되어있음

6) Behzad museum

이란 근대미술의 선구자인 Hossein Behzad 의 작품 전시

7) Abkar museum

20 세기 이란의 여성 미술가 Klara Abkar 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음. 이란의 신화와 전통을 주제로 삼음

8) Mir Emad museum

18 세기의 유명한 Calligraphy(이슬람 서체)작가인 Mir Emad 의 작품을 포함 10~19 세기 Calligraphy 가 전시되어있음

9) Museum of anthropology

2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박물관으로서 이란인의 전통적인 생활상을 보여 줌

10) Water museum

고대의 이란의 관개 전통 기술 및 기구 전시

11) Military museum

고대 아케메니아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군사 장비 전시

12) Niyavaran 궁전

팔레비 시대의 대표적 궁전의 하나로 카라자 왕조 (1795~1925)시 왕의 거처로 이용되었으나, 1948 년 팔레비 왕조 시대에 재건축이 시작되어 1967 년 완공됨. 5 h/a 의 넓은 정원에 세워진 200 평방미터 건물 내부에 진기한 카펫, 화려한 응접세트 및 조각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팔레비 왕조 전성 시대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음

13) 카펫 박물관

두 개의 홀과 광대한 지하전시장에 페르시아 카펫이 시대별, 지역별로 구분, 전시되어 페르시아 카펫 발전의 역사 및 현황을 관람할 수 있음

14) 보석 박물관

사파비드 왕조 때부터 인도, 오토만터키, 프랑스, 이태리등 유럽 국가들로부터 사들인 진귀한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음. 그 후 이민족과의 전쟁 등으로 많은 보석류들이 분실, 약탈되기도 했으나 아직 상당량이 보관 되어 있음. 유명한 보석으로는 Kiani 왕관, Nadir 왕좌, 보석으로 만든 지구본, 공작 왕좌 등이 있음. (90%는 이란산, 10%는 외래보석)

15) 테헤란 Bazar

중동 최대의 재래시장 중의 하나이며, 10Km 가 넘는 미로로 구성된 이란의 재래시장으로 카펫, 귀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거래됨.

16) 중동 최고봉 Damavand

북동지역 Alborz 산맥에 위치(해발 5671m), 정상은 萬年靄로 덮여있음 (파라마운트 영화사 로고에서 보이는 산과 유사)

나. 이스파한

테헤란에서 약 481KM 떨어져 있으며, 셀주크 왕조와 Safavids 왕조의 Shah Abbas (1587-1629) 이후의 수도로서 이 무렵 『세계의 절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하였으며 이란에서 유적이 가장 잘 보존된 이란 제 1 의 관광도시임. 이스파한의 주요 관광 명소는 아래와 같음.

1) Imam 광장

가로 180m, 세로 550m 의 광장으로, 이슬람 문양의 Dome 과 Minaret 를 가진 Imam Mosque 와 Sheikh Lotfollah Mosque 가 있음.

2) Four Garden

4 개의 정원 사이로 3 개의 도로가 강으로 향하는 수로와 함께 수 km 에 걸쳐 평행으로 이어진 Safavids 왕조 시대의 정원

3) Pol-e-Khaju (하쥬다리)

17C 에 건설된 Sassan 조 양식의 아름다운 다리

4) Jolfa Church

17C 에 건설된 아르메니아인의 교회로서 세계에서 제일 작은 성경책, 성경구절을 도금한 머리카락 등 종교 유물 소장

5) Chehel Sotun

40 개의 기둥 (물에 비친 그림자 20 개 포함)을 가진 궁전, 벽화가 유명함

다. 쉬라즈

Hafez, Sadi, Molla Sadra 등 유명한 문인 및 학자가 배출된 곳으로 『지식의 전당』이라고 불리며, 수도 테헤란에서 895KM 떨어져 있음. Persia 어원이 된 Fars 주의 중심도시로서 주변지역이 아카메니드 왕조의 Darius 왕 (BC 6C)이후 및 혼란기의 Zand 왕조 (18C)의 수도였던 역사적인 도시로 페르세폴리스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임. 쉬라즈의 주요 관광명소는 아래와 같음.

1) Persepolis

다리우스 및 후계자의 궁전으로, 이집트, 바빌로니아 등 BC6C 경의 중근동의 건축양식이 혼합된 유적. Alexander 대왕 및 아랍족의 침입 시 대부분 파괴되어 기둥, 벽면 등 일부만이 남아 있으나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화를 잘 보여줌.

2) Naqsh-e-Rostam

다리우스 및 후계자들의 무덤으로서 거대한 암벽동굴에 만든 무덤 사이사이에 영웅적 정복 행위를 기리는 부조를 볼 수 있으며, 바로 옆에 정교한 모습의 Sassanian 배화교 제단 이 우뚝 서 있음

3) Shapur relief (Kazerun)

Sassan 왕조의 로마 및 아랍에 대한 전승기념물로 거대한 암벽 중간에 승리의 장면을 새겨 놓고 있음

라. 타브리즈

수도인 테헤란에서 서북쪽으로 775KM 떨어져 있으며 유럽으로 이어지는 국제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임. 팔레비 왕조 때 카펫 문화를 국가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카펫 생산 도시로 지정되었던 곳. 현재도 고가의 카펫이 생산되는 공업도시임. 타브리즈의 주요 관광명소는 아래와 같음.

1) 마스제데 카부드(일명 '블루 모스크')

지한 왕정(1389-1420)때 건축된 모스크.

2) 라사드 호네

약 500 년 전 천문학과 기상을 연구했던 옛 천문기상대

마. 카스피해 연안

테헤란 북부지역에 위치한 카스피해는 테헤란에서 승용차로 약 5 시간(491KM)소요되며 캐비어 생산으로 유명함. 세계 최대의 염수호(한반도의 2 배)로서 남부 해안 600km 전체가 휴양지로 구성되어 있음. 연안 휴양도시로 라쉬트, 람샤르, 찰루스 등이 유명. 수상스키, 요트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자연원시림 지역이 많고 습도가 높아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휴양지로 인정받고 있음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 Export-Import Regulations Act
- The Executive Ordinance of Law on Export-Import Regulations
- New Foreign Investment Law
- Law of the Attraction &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 Law & Regulations on the Administration of Free Trade-Industrial Zone
- Customs Regulations
- Copyright Law
- Trademark Law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 이란정부는 지난 90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과다한 석유 의존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 정책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저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견지하는 반면 완제품 및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는 100%까지 고관세를 적용하여 최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산업화 정책에 부합하는 석유화학, 농업, 광업, 자동차, 철강산업 관련 기계류의 경우 수입허가 면제
 - 국내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 및 시설재중 일부 품목은 광공업성 사전수입 허가 면제품목으로 고시, 수입 완화
- 비관세 정책은 주로 상무성 및 광공업성 등 수입허가 관청에서 사전수입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란의 산업화에 필수 불가결한 자본재는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이란 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국산제품의 품질수준과 생산물량에 관계없이 수입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이란정부의 수입제한 정책에 대응, 산업협력을 통한 CKD방식 수출 등 현지 투자를 통한 수출확대 기반조성이 필요함.
- 모든 수입품목은 승인품목(Authorized), 조건부승인품목(Conditional), 금지품목(Prohibited)으로 분류되는데
 - 자동승인품목 : 없음.
 - 조건부 승인품목 :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되나 자동차, 화장품 등 불요불급한 완제품, 소비재의 경우 10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금지품목 : 무기류, 마약, 술 등

○ 그 동안 이란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품질 및 물량에 관계없이 국내 제조업체가 상업성에 신청시 고관세 또는 수입 미승인 품목으로 분류하였으나 2001년 7월부터는 대부분 품목의 수입을 승인하는 대신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2004년에 들어서는 이란 상업성 등 주요 정부기관이 시장메카니즘 활성화를 주창하면서, 수입완화 및 수입관세 인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중이기도 함. 2005년부터는 수입관세를 기존 custom duty 와 commercial tax 두 항목을 통합 운영함

○ 수입절차

- 상무성 수입신청- 관계 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시중은행에서 L/C 오픈 사전 예치금 납부- L/C 개설, 수입 실시- 수입 시 적용환율은 변동환율 (미\$1=약 9,080리알, 2006.2월 기준)
- 정부부처 및 기관별 수입할당액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외환 예산사정에 의거 분배됨.

나. 수입규제 사례

1) 선적전검사

이란 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전검사 제도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란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 일정액 이상 수입시 선적전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L/C 개설 이전에 선적전 검사 필요 여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함.

선적전 검사의 경우 수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높은 신용평가를 받고 있고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치 않을 수도 있음.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영 표준연구소(Institute of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 ISIRI)가 지정한 이란 또는 ISIRI가 지정 및 허가한 검사기관(총 22개)중 한국 내에서 Agent를 갖고 있는 검사기관은 9개로 그중 대표적인 것은 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임. (OMIC) <서울 방배동 소재, 전화: 3471-4725>

선적 전 검사제도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선적지연, 수수료부담 등 교역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001년도부터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란의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이란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음. 향후 우리업체의 경우 동 검사가 이란 수출시 필수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신용장 개설 전 수입업자에게 선적전 검사 면제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선적전 검사기관중 하나인 I티는 한국에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일본소재 I티로 부터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큰 바, 사전 바이어에게 검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2) 수입규제사례/[이란]원산지 증명제출 및 영사확인

그간 우리나라 수출 업체의 애로사항의 하나였던 선적서류에 대한 영사인증 의무 또한 선적 전 수입 검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결과 수입 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 업체가 주한 이란 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따라서, L/C 개설 이전에 수입자에게 영사인증 조항삭제를 요구하여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수입규제사례/표준규격

이란국립표준공업연구소(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ISRI)는 각 제품의 표준규격을 정하는 이란의 유일한 기관임. 동 기관은 필요에 따라 품목별 표준 규격을 정하는데, 결정된 규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필수 표준규격 적용대상 품목은 반드시 인보이스상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함.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통관에 어려움을 겪게 됨.

최근 이란은 가전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에 이란표준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CE등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취득한 제품은 이로 갈음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는 통관이 불허되고 있음. 이 경우 다소 시간은 걸리나 수입상과 협의를 통해 이란표준규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

4) 수입규제사례/위생, 안전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품 관련 품목은 이란 보건성의 표준규격 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성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함.

위생, 안전허용 기준 승인을 득한 품목만 수입이 허용되는데 보건성의 심사통과를 위해서는 CE, FDA 등의 국제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심사결정까지 통상 45-60일이 소요됨.

소형 전자안마기도 보건성의 사전 수입승인 필요 품목의 하나임.

5) 수입규제사례/샘플통관

해외에서 이란으로 발송하는 샘플 및 카탈로그 통관시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현지에서는 통관 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음. 통관 소요기간도 1 ~ 2주 이상에 달해 우리나라의 수출업체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시 필요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어 현지 시장개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핸드캐리 샘플 또한 공항세관에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샘플 정식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세관원이 많아 현지인의 도움 없이는 통관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정식 통관시 요구하는 예치금의 반환은 출국 후 6개월 이후에나 돌려 받을 수 있어 많은 업체에서 예치금 반환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여타 항공특사 대비 가격이 저렴한 EMS를 활용하는 국내기업이 많은데 현지 EMS의 서비스 약화로 샘플이 되돌아 가는 경우도 있어, EMS활용 시에는 현지 바이어에게 EMS 발송 코드 송부를 통해 Follow-up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수입규제사례/한국산 수입 Proforma Invoice 승인 규제

이란 상무성은 2005년 10월 17일 한국산 수입 Proforma Invoice에 대한 승인을 중단한 바 있음.

동 사태는 이란 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진행되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바,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제재한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후 11월5일부터 수입승인이 재개되었으나 자동차부품 등 자국 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 류에만 국한되었으며 동 조치의 완전한 해제로 볼 수 있는 가전 완제품이 제외되었음

하지만, 11월24일 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의 UN 안보리 회부 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음으로써 이란의 한국산 금수 관련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후 동조치는 2006.1월을 기점으로 완전 해제되었음

7) 정부조달 품목 국산화 강행

□ 정부조달 국산화 조치

- 2006.4월 이란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하기 내역을 중심으로 한 총 58개 품목에 대해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납품 시 이란산만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 칼라 TV, 냉장고 및 냉동고, 세탁기, 테이프카세트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화기
 -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경비행기
 - 오븐, 정수기, 계산기, 가구, 주방 및 식탁 용기, 도자기 및 유리 제품
 - 혈압계, 가스 쿨러, 재봉기, UPS, 계측기기, 건축자재 등
- 동 조치는 광공업성 주도로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중심으로 지난 06년 1월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4월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되었음.
- 이에 따라 한국산 등 외국 제품은 향후 이란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나 58개 품목의 분류 및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시행에 혼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 대이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 상기 58개 품목에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 주종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치의 대상이 정부조달에 국한되어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TV 등 가전제품과 컴퓨터의 경우 정부입찰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CKD 방식의 현지 조립 비중이 높아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냉장고 등 백색가전의 경우에는 정부입찰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 한국산의 9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40%의 수입관세를 물고 CKD 상태로 들어오고 있으며 승용차 역시 현지 조립 위주로서 완성차 수출 비중은 극히 미미한 상태임.
- 다만 금번 조치는 건설 플랜트 분야의 자국화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으로서 아흐마디네자드 신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우려케 하고 있음.
- 즉, 향후 이란 시장이 폐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란 바이어 및 제조업체들과의 산업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란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첨단 및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17.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H.S 분류방식을 채택. 이란은 쌍무간 또는 회원국간 적용되는 특혜관세율 적용을 고려 중에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9개 ECO 회원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최근 파키스탄과 특혜관세 협정을 체결, 합의된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표준관세율에서 19%씩 인하한 특혜 관세를 적용기로 함.

이란 관세법은 수입품이 덤핑이나 유례없는 호조건 및 양보에 의하여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과거 수입된 가격과 Proforma Invoice상에 명시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추정가격에 의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반덤핑 관세부과의 투명성이 낮음. 현재까지 이란당국이 한국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음.

이란 관세규정에 따르면 이란의 수출품목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이란 정부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ECO회원국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율을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1개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란은 관세율 조정을 통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데, 원자재, 부품 등 자본재는 약 10%이하의 저관세를 적용하며, 시계, 가구, 자동차 등은 약 6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바이어의 탈세조장 또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덤핑 또는 비정상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조정, 인하할 경우 이란정부는 동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인상 등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음. 관세환급은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관세를 우선 납부 후 환급이 가능함. 수출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대상품목은 상무성과 관련부서와의 협의 하에 결정됨.

참고로 최근(2006.5월) 이란정부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핸드폰을 포함한 가전과 섬유류에 대해 전년대비 큰 폭의 수입관세를 인상한바 있음

1) 관세의 종류

이란의 관세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과거에는 기본 관세(CUSTOM DUTY) 및 상업이윤세 (COMMERCIAL BENIFIT TAX; CBT), 은행세(Banking Charge)로 구별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상업이윤세가 기본관세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은행세(Banking Charge) : 5%

2) 관세 환급 :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관세 사후 환급.

이란의 관세법에 의하면 수입품이 덤핑이나 유례가 없는 호조건 및 양보에 의해 이란시장에 반입되어 이란의 동종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경제를 왜곡시키는 경우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부과방법은 과거 수입된 동일품목의 수입가격과 현재 수입품의 P/I상에 명시된 가격과 비교,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낮은 경우 추정가격 의해 관세를 산정, 부과함. 또한 상계 또는 반덤핑 관세 부과와 더불어 의도적으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정상 가격에 의한 P/I발행을 요청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함.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극소수로 이는 국영 매 및 유통 센터에서 L/C 개설 전 및 주문 등록 전 가격을 엄밀하게 체크하고 있기 때문임.

18. 주요인증제도

가. 선적 전 검사

이란 정부는 2001년부터 선적 전 검사 제도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란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입자의 신용에 따라 일정액 이상 수입 시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L/C 개설 이전에 선적 전 검사 필요 여부를 간밀히 협의해야 함.

수입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높은 신용평가를 받고 있고 무역보험을 가입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 전 검사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음.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영 표준연구소 ISIRI (Institute of Standard & Industrial Research of Iran)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ISIRI 지정 검사기관은 총 22개이며 한국에 Agent를 갖고 있는 검사기관은 9개로 그 중 대표적인 것은 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 (서울 방배동 소재, 전화: 3471-4725)

동 검사가 이란 수출 시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신용장 개설 전 수입업자에게 검사 면제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선적 전 검사 기관의 하나인티는 한국에 사무소가 없어 일본 소재 IET로부터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손실이 큰 바, 바이어에게 검사기관 변경을 사전 요청할 필요가 있음.

나. 선적서류 영사인증

종전 대이란 수출 시 애로사항의 하나였던 선적서류에 대한 영사인증 의무 또한 선적 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됨.

수입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주한 이란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L/C 개설 이전에 수입업자에게 영사인증 조항 삭제를 요구하여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표준규격

이란 국립 표준공업연구소 (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ISRI, 홈페이지: www.isiri.com)가 정하는 필수 표준규격 적용 대상 품목의 경우 반드시 인보이스상에 관련 규격이 명시되어야 함.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 되지 않는 경우 통관에 어려움을 겪게 됨.

최근 이란은 가전제품 및 자동차부품 등에 이란 표준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CE 등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취득한 제품은 이로 갈음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는 통관을 불허하고 있음. (이 경우 다소 시간은 걸리나 수입상과 협의를 통해 이란 표준규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

라. 위생안전 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이란 보건성의 표준규격 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성에 제출하여 승인을 획득해야 함.

위생, 안전 허용 기준 승인을 득한 품목만 수입이 허용되는데 보건성의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CE, FDA 등의 국제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심사결정까지 통상 45-60일이 소요됨.

소형 전자안마기도 보건성의 사전 수입승인 필요 품목의 하나임.

19.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및 상표법이 있으나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대량 불법 복사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위조가 손쉬운 아이디어 상품 등은 현지 시장 진출에 신중을 기해야 함. 예를 들면 최근 현지 업체에 의한 우리나라 A사의 "공기청정기"와 C사의 "식품포장랩" 불법 복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우리나라 업체의 상표 미등록과 현지 관련 법규 미비로 별다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최근 이란 정부는 자국 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대부분 사용 소프트웨어들이 수입산으로 아직까지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20. 소비자보호제도

이란의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은 현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 소매점포에 가격표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특정 점포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표준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소비자의 클레임 청구권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구입한 물건이 이란 표준연구소가 정한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소비자가 동 위원회를 통해 구입 물품에 대한 클레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법적으로는 상기한 바와 같으나, 현지 시장이 아직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 의한 클레임 제기 사례는 거의 없음은 물론이고, 클레임 제기시에도 처리 절차가 불투명하고 장기간 소요되며, 실제로 해결되는 사례도 거의 없음.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가. 정부 부처

- 상무성 (Ministry of Commerce)
 - 업무 : 사전 수입 승인 기관(모든 제품 해당)
 - 홈페이지 : www.commerce.ir

- 보건성 (Ministry of Health)
 - 업무 : 의료기기, 의약품 등 보건위생에 관련된 제품의 수입 승인처
 - 홈페이지 : www.mohme.gov.ir
- 광공업성 (Ministry of Industry & Mines)
 - 업무 : 특수 산업장비, 별도 이란이 규정한 장비의 수입 승인처
 - 홈페이지 : www.mim.gov.ir

나. 정부산하기관

- IRISL
 - 업무 : 이란 국영선사로 이란수출입 관련 선박운영
 - 홈페이지 : www.irisl.net
- TPO
 - 업무 : 이란 무역진흥기관으로 입법권한도 있으며 상무성 소속기관
 - 홈페이지 : www.tpo.ir
- ISIRI(Institute of Standard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 업무 : 이란국영표준협회로 수입제품의 품질 관리 및 테스트 기관
 - 홈페이지 : www.isiri.com
- Ir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 Mines
 - 업무 : 이란상공회의소로 회원가입한 업체들의 수출입 업무 지원
 - 홈페이지 : www.iccim.org

22.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및 특성

1) 중동 최대 경제성장 잠재력 보유

약 7천만의 인구, 한반도의 7.5배에 달하는 국토,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교육 수준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임.

이란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화 의지와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중동의 핵심 국가이자 역내 산업화를 달성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 실제로 인근 CIS 국가와의 교역량은 매년 증가세

2) 우리나라의 중동 최대 수출시장

이란은 우리나라의 중동 최대 수출시장으로 대이란 수출 규모는 2005년 기준 21억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두바이를 통해 이란으로 재수출되는 (대UAE 수출액의 약 40% 추정) 금액 합산 시 실질적인 중동 최대의 수출시장임.

연간 3~4억불에 달하는 한국상품이 이란을 경유, 중앙아시아로 재수출 되고 있음.

3) 대형 프로젝트가 준비한 시장

이란은 원유, 석유가스 유전 개발 및 이와 연계한 화학 및 건설 프로젝트가 준비한 시장으로 1997년 발주한 걸프만의 South Pars 지역 가스전 개발은 단일 프로젝트 발주 규모가 20억불에 달함.

이외에도 각종 화학 플랜트, 댐, 담수 설비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발주 되고 있으며 향후 Assaluyeh 경제특구 개발 등 초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고 있음.

4) 밀무역이 성행하는 시장

섬유류, 문구류, 시계, 담배 등 수입 절차가 까다롭거나 수입관세가 높은 품목들의 경우 두바이, 터키 및 이란 남부의 3개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밀수입되고 있음.

동 밀수입 규모는 이란 총 수입액의 약 20%인 6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 이란 정부는 이를 80-120억불로 추정한 바 있음.

나. 유통구조

이란 정부는 회교혁명 후 농작물과 공산품 등 생필품을 전국 각 지역의 협동조합을 통하여 유통시켜 왔음.

수입품은 상무부 산하 10개 국영 구매 유통센터(PDC)가 전국의 협동 조합망을 통해 유통시켜 왔는데 1991년 9개의 PDC가 해체되어 정부 영향력이 감소된 반면 혁명 이후 세력이 위축되었던 바자르 상인(한국의 동대문시장과 비슷)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공산품 소비재의 경우 이란 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이 밀수로 수입되고 있는데, 이란의 각종 상가에는 많은 물량이 유통되고 있으며 TV, 신문, 거리 간판에 버젓이 광고도 되고 있음.

이란에는 백화점 및 전문점과 같은 현대화된 유통채널이 전무하였으나 1995년 이후 정부 주도로 테헤란시에 종합 물류센터가 상당수 개점되어 전통적인 바자르 상인의 유통망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 향후 바자르 상인의 유통망 위축은 예상되지는 않으나, 현대식 유통망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다. 결제 및 마진

일반적으로 바자르 상인을 통한 유통구조의 특징은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신의 및 신뢰 관계에 의해 대금 결제 방법이 결정된다는 것임.

바자르 상인을 정점으로 한 유통구조는 복수의 피라밋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대개 3개월 어음 결제였으나 최근 현지화 가치 급락으로 현금 결제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음.

물자 품귀 현상 등이 발생할 때는 결제 기간이 단축되며 공급 과잉 현상 발생시에는 결제 기한이 연장되기도 함.

정부기관에 의한 유통의 경우 이윤 폭이 10% 내외이나 바자르를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유통 단계별로 30-40%의 마진 폭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임.

일반 상품의 경우 도매상이 직접 소매상으로 유통시키나 전자제품의 경우 보통 중간상 1단계를 더 거침.

이란은 전형적인 SELLER'S 마켓으로 구매량과 관계없이 할인 폭은 크지 않음.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의 경우 현지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부재로 출장을 통한 현지 방문을 제외한 바이어 발굴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관련 유관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바이어 매칭을 하는 업체는 아직 없으며, 유관기관의 정보 또한 미미한 상황이다.

가. 유관기관

1) 정부 소속기관

- TPO
 - 업무 : 이란 무역진흥기관으로 입법권한도 있는 상무성 소속기관
 - 홈페이지 : www.tpo.ir
- Iran Chamber of Commerce, Industries & Mines
 - 업무 : 이란상공회의소로 회원 가입한 업체들의 수출입 업무 지원
 - 홈페이지 : www.iccim.org

2) 주요 협회 및 조합

-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Syndicate of Iran
 - 전화 : 98-21-8863-675
 - 팩스 : 98-21-8831-9630
- Computer Manufacturer Syndicate of Iran
 - 전화 : 98-21-8842-5106
 - 팩스 : 98-21-8841-5004
- Iran ISP 협회
 - 전화 : 98-21-8871-4140
 - 팩스 : 98-21-8855-5719
- Steel Producer 협회
 - 전화 : 98-21-8897-5659
 - 팩스 : 98-21-8897-5658

- Sanitary Valves 협회
 - 전화 : 98-21-8884-7090
 - 팩스 : 98-21-8884-9276
- Detergent, Hygienic & Cosmetic Industries 협회
 - 전화 : 98-21-8896-7115
 - 팩스 : 98-21-8895-8533
- Adhesive Cooperation 협회
 - 전화 : 98-21-5563-8104
 - 팩스 : 98-21-5563-8104(전화검용)
- Auto Parts Manufacturers 협회
 - 전화 : 98-21-8889-5321
 - 팩스 : 98-21-8889-1913
- Cement Industries 협회
 - 전화 : 98-21-8879-0766
 - 팩스 : 98-21-8877-3808
- Measuring and Scaling 협회
 - 전화 : 98-21-7753-1711
 - 팩스 : 98-21-7753-1711(전화검용)

나. 전시회

이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대부분 테헤란 국영전시공사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주요 2006년 개최 전시회는 아래와 같음

1) 2006년 주요 전시 정보

- 4 월
 - 11th int'l. exhibition of oil, gas & petrochemical industries
- 5 월
 - 19th int'l book fair
 - 10th int'l. exhibition of medical , dental & hospital equipment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Iran med 2006)
 - 13th int'l. food, food processing & agricultural trade fair (Iran agro food 2006)
- 6 월
 - 제 8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시회
- 9 월
 - 7th int'l. telecommunications ,it & networking trade fair (Iran-telecom 2006)

- 11 월
- 13th electronics , computer & e-commerce int'l fair (Iran -elecomp 2006)

다. 기타

- 이란에서 발간되는 업체 디렉토리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렉토리는 모하담 디렉토리와 골든키 디렉토리임.
- 상기 자료는 책자와 CD 로 발간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유료 사업은 하고 있지 않아, 현지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음
- 이란에서는 바이어 발굴용 별도 간행물은 없음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의 경우 현지의 통신사정 및 인터넷 인프라의 부족으로 출장을 통한 현지방문을 제외한 원격지에서의 발굴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관련 사이트가 있지만 접속 및 회원가입 문제가 복잡하여 사용이 불편한 것이 현실이며, 수록량도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가. 웹사이트

이란에서는 인터넷으로 업체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매우 드문 상황. 아래는 일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임

- Iran Yellow Page
 - 홈페이지 : www.iranyellowpages.net/en/
- Iran Hiway
 - 홈페이지 : www.iranhiway.com

나. D/B

- 온라인 상에서 별도로 기업 DB 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은 없음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문화적 배경 및 기질

이란은 2,500년의 역사 속에서 매우 다양한 사회와 문화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아랍국들과는 다른 면이 많음.

유럽, 이슬람 등 다양한 문화가 융화되어 있는 이란은 그 자신이 주변의 아랍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음.

페르시아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강하게 나타내며 주변 아랍국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매우 굴욕적인 것으로 간주함.

이란인의 기질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호적이고 개방적이며 배짱이 두둑한 면이 있는 반면 엄격한 종교율법에 따른 제약도 많음.

복장, 사교, 행정, 사법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에 이슬람적 요소가 깔려있음.

종교에 기초한 상황은 신이 내린 것으로 간주하고 논박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며, 종교 율법만이 유일한 법임.

이슬람혁명 이후 넥타이를 매는 것을 금하여 법원이나 관공서 출입 시에는 외국인의 경우도 풀 것을 요청하고 있음.

서구에서는 대화 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상대방에 집중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이란에서는 서로 다른 종족간에는 피하는 것이 예절임.

이란인들은 매우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나 공적인 관계에서 지키는 예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됨.

약속된 초대는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초대하는 측이 무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번은 사양하는 것이 좋으며 자기 집에서 거주하라거나 자동차를 내주는 것 등 평소 관계에 비추어 과하다 생각되는 것은 예절상 권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것은 좋지 않음.

나. 상담 시 유의사항

전화 및 서신으로 일반적인 정보 교류 후 비즈니스상의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직접 대면하여 결정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업체 오더보다는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성향이 강함.

상담 시에도 개인적인 인사나 일반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어 한국 사람의 시각에서는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임.

거래 협상이나 계약 시에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 즉, 사회, 기업, 가족 등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협상에 임할 때는 개인적인 면보다는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음.

그러나, 제품 광고에서는 개인에의 유용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외국 상표가 부착된 물건은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 보는 것도 좋음.

최초 상담 시 이란 바이어들의 공통적인 요구 사항은 가격 인하이며, 이는 실제 가격의 합리성 계산에 앞서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인살라"식의 사고에 기인함.

이란은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상담 시 종교 및 내정에 대한 비판은 삼가야 하며 외국인(여성)의 경우도 헤잡(스카프)을 쓰는 등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야 함.

2,500년 역사의 페르시아 후예답게 문화 및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므로 비판은 삼가는 것이 좋음.

이란 관공서의 경우 일처리가 다소 늦고 처리과정이 복잡하며 공무원에 대한 뇌물성 선물은 금하므로 주의해야 하나 조그만 선물은 인간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태극부채, 열쇠고리 등 한국을 상징하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최초 상담에서 가격 인하 및 에이전트 요구 등 세부적인 사항 언급으로 거래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이는 단지 상담술에 불과함.

오퍼를 내더라도 10개 이상의 업체 가격을 비교하며 심지어는 P/I를 보여 주며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또한 P/I 발행 후 연락이 없어 잊고 있었던 업체에서 1년 후에 L/C개설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처 관리가 필요함.

모든 것은 신에게 달려있다는 인살라 관습에 의해 매사에 느긋하여 외국에 체류하였거나 왕래가 잦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속 시간도 잘 지키지 않으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 지도 않음.

다. 문화적 금기사항

남녀구별이 확실하여 버스도 앞쪽 반은 남자, 나머지 반은 여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항 출입 시에도 남. 녀 출입문이 따로 있음.

이슬람 교리상 여성은 외부 남성에게 유혹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을 차단토록 되어 있어 남편과 부모 외에는 신체를 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스카프를 쓰고 긴 코트를 입어야 함.

여성의 노출이 심한 잡지나 카탈로그는 반입이 금지되며 Time지나 한국 신문 통관 시에도 노출이 심한 부분은 지우고 통관되고 있을 정도로 규제가 심함.

현지 출장 시 돼지고기 및 술의 반입은 절대 불가하므로 주의가 요망되며, 내국인의 경우에는 음주 적발 시 벌금형 또는 태형에 처해지고 있을 정도임.

팁 문화가 발달된 나라로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는 요금에 팁이 포함되어있지만 일반적으로 10,000 리알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가. 수입 관행

이란 시장은 가격, 브랜드, 안면 시장으로 정의되곤 함.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는 진출이 여의치 않은 점을 이용, 현지 바이어들의 경우 최초 수입 상담시부터 가격 인하 조건을 서슴없이 내세우는 경향이 강함.

하나 일단 가격 인하 조건 수용시 2, 3차에 걸쳐 계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므로 최초 상담시 가격 인하 조건을 수용하기 보다는 품질 우수성 등을 내세워 합리적인 가격 형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함.

이란의 경우는 최초 상담 이후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단 1년 이상으로 거래 성약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한 상담 전략 마련이 필요함.

P/I 발급과 계약 체결 후 1년 가까이 L/C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가 더 싼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급업자가 있으면 동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참고로, 한국 공급업체는 업체 사정상 수익도 중요하지만 대개 일정 부분의 이윤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나 이란 바이어는 대부분이 자사 창고에 다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수입 상담시 조급함을 보이지 않고 신중을 기함.

나. 이란 비즈니스맨의 거래 관행 대응 요령

중국이 만만디라면, 이란은 야보시(Slow) 문화, 최초 상담 이후 거래 성약에 이르는 평균 시간은 최소 1년 정도 잡아야 함.

이란 비즈니스맨들은 최초 상담시 서슴없이 가격인하를 요구하지만 이란 바이어의 가격 인하 조건을 즉시 수용하더라도 계약 체결로 연결될 가능성은 불확실함.

즉, 또 다른 국내 업체에게 인화된 P/I 가격을 제시하면서 똑같은 요구를 하곤 하므로 가격 인하 요구 수용보다는 바이어가 제시한 P/I상의 제품과 자사 제품간의 품질 차별화 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임.

공급업자가 가격 인하 조건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공략하더라도 거래 성사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수많은 공급업체를 상대해 보고 난 현지 바이어가 상당 시간이 흘러 (공급업체 입장에서 바이어를 잊어먹을 만한 시점) 국내 공급업체를 접촉하는 경우, 거래 성약 가능성이 높음. (시기적으로는 1-3월간)

이는 이란 바이어들이 취득한 I/L (Import License)의 유효 기간이 특정거래를 제외하고는 주로 3월인 회계연도 내에 만료되기 때문임.

만일, 동 기간에 수 개월 전 만난 바이어가 접촉을 하여, 약간의 가격 인하 조건을 요구할 때, 수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최소의 범위 내에서 수용시 바로 신용장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음.

다. 특수거래 (Under Value & Over Value) 조건 대응 요령

이란 비즈니스맨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의례히 부딪히는 문제가 Under Value 및 Over Value 문제임.

현지 바이어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20-30%의 Over Value를 선호함.

이 경우는 신용장을 Over Value 금액으로 개설한 뒤, 국내 공급업체가 대금 결제 후 Over Value 분의 금액을 해당 바이어에게 되돌려 줘야 함.

Refund는 주로 바이어의 3국 계좌 입금 또는 Cash 형태로 진행됨.

Over Value 거래를 진행하는 국내 업체들의 일반적 대응 조건은 하기와 같음.

Over Value금액 송금을 위한 은행수수료의 바이어 부담

Over Value 금액을 기준으로 한 6-10%의 국내 법인세에 대한 바이어 부담

* 국내 법인세가 25%대에 달하나, 상호 거래 파트너임을 감안, 최소한의 경비를 바이어에게 전가

라. 신용장 거래 및 신용거래 대응 요령

이란과의 비즈니스는 "신용장 거래"가 신뢰도가 높고 안전함.

과거에는 이란에서 발급되는 신용장의 대다수가 At Sight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Usance L/C의 비중이 높음. (현지 예금 금리가 연 15% 수준)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Usance L/C라 하더라도, Bank Gurantee Usance 였으나 최근에는 Buyer's Gurantee Usance L/C라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음.

이란과의 거래는 주로 신용장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바이어들은 첫 대면에서부터 "신용거래"를 요구하곤 함.

신용거래 조건으로 선수금 20% by Cash, 잔금 80%는 물품 수취일 기준으로 180일 후 by Cash를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음.

특히, 소비재를 수입하는 Kish 등의 자유무역지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바이어들이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을 선호함.

이란과의 무신용장 거래 방식도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에서 부분 가능함.

부분 조건은 이란 업체의 신용조사를 거쳐, 선적일 기준 90일 이내의 신용 거래에 한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이란 바이어의 요구 조건에 대해 선수금 20% Cash, 잔금 80%는 선적일 기준으로 90일 by Cash라는 조건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음.

마. 대이란 수입 L/C 개설시 유의사항

- 대이란 수입의 경우 한국에서 L/C 또는 L/G 개설시 이란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한국 은행은 다음과 같음.
 - 한국수출입은행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이란 Bank Mellat 서울지점

- “우리은행”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의 Black List에 올라있어 거래가 불가능하며 외환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미국계 펀드이기 때문에 이란 은행에서 받지 않음.

27. 통관절차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 신고서에 의거, 신고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품으로 간주됨. (참고로 이란은 인근 두바이 및 국경 지대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음)

수입품 검사는 P/I, 원산지 증명서 및 인스펙션 증명서, 상업송장 및 관련 여타 서류 체크 등을 통해 이루어짐.

세관에서 Green Paper를 발행한 후에도 Green Paper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스탬프나 도장이 찍혀야만 완전 무결 통관으로 간주됨.

P/I상의 금액과 상업송장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또는 중량 증명서상의 중량과 실제 중량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Green Paper 뒷면에 최종 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음.

샘플 통관의 경우 소액, 소량인 경우라도 통관수수료 및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관 기간도 1-2주 정도 소요됨.

수입 통관시 실중량 측정과 관련, 철강, 종이, 파이프 등의 경우 수입통관시 제품 무게를 측정하여 인보이스에 명기된 중량과 비교하는데 이란 세관은 국제적 관례로 인정하고 있는 중량의 오차 범위(약 5% 내외)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고중량 측정 저울의 일반적인 오차 한계도 인정치 않고 있음.

이란의 공식 통관 절차는 수입물품의 보세창고 보관, 세관에 관세 사정 요청, 물량 확인, 샘플 테스트, 가격 체크, 관세 및 기타 제세 지불, 통관확인서 발급 등 순으로 진행됨.

28. 운송

가. 국제공항

- 현재 국제공항은 노선에 따라 이맘호메이니 공항 (테헤란 남쪽으로 30km)과 테헤란 시내 공항을 동시에 사용 중이며, 점차적으로 이맘호메이니 공항 사용을 늘리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주의 주요 도시인 쉬라즈, 이스파한 등에 공항이 있음.
- 국내선은 Iran air 와 Asseman, Saha 등 6개 항공사가 취항중임.

- 국제선은 현지 항공사인 Iran Air가 매주 30편을 운항 중이며 이스탄불, Zurich, Frankfurt, Athenes, Kuala Lumpur, Rome, Paris, Karach, Beijing, Tokyo, Dubai, Amsterdam, Moscow, Cyprus 등지로 취항하고 있으며, 외국 항공사는 Aeroflot, Air France, Air India, Alitalia, Emirates Air, Gulf Air, KLM, Lufthansa, PIA, Swiss Air, Syrian Air, Turkish Airways 등 이 있음

나. 국제항구

- 이란 북부 카스피 해 해안이 630km이며 남부해안이 1,880 km에 달함.
- 북부 항구는 카스피 해 에 인접한 Bandar Anzail와 Noshahr, 남부에는 이란 최대의 항구인 Bandar Abbas(우리나라 부산에 해당), 그리고 자유무역지대인 Kish, Qeshm, Chabahar 등이 있음.

다. 운송비용

- 20 ft 컨테이너의 주요루트인 부산- Bandar Abbas 간 해상운임의 경우 2006년 8월 기준 1,200\$ 정도이나 항구에서 수도인 테헤란까지의 내륙운송 비용도 1,200~1,500\$ 정도로 해상운임만큼 비쌌음
- 항공운송은 운송기간이 짧은 대신 가격이 매우 비싸며,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음

라. 주요 운송회사

- 이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운송회사는 Uni Pack 이며, 통관서비스도 일부 겸하고 있음
- Uni Pack
 - 전화 : 98-21-4490-3535
 - 팩스 : 98-21-4490-1480
 - 이메일 : info@unipackmover-iran.com

29. 분쟁해결 절차

1) 이란 비즈니스에서 분쟁이 발생시 해결장소가 어디가 되느냐가 중요

- 이란 내에서 이란 법으로 해결 시
 - 대부분 자국민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업체들이 분쟁 해결에 불이익을 당함
 - 분쟁 해소를 위해 법정에 서게 될 경우 해외 업체들은 대부분 패소함

2) 해외 업체의 이란 투자 시에는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장받기 힘든 시스템

- 과실송금 보장 안됨
 - 이란에서 과실송금은 2002 년 5 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보호법(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에 의거 재무부 장관 승인하에 가능하나 실제 발생된 사례가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에 따라 대 이란 투자가 극소수에 그침
- 분쟁 발생시 해결기관 부재
- 상기와 같은 투자건의 경우 분쟁 발생시 적절하게 조절해주고 해결해 주는 국가 기관이 부재
- 그러나 최근 이란 정부는 제 4 차 5 개년 개발계획(2005~2010)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 아국과는 한-이란 투자보호협정(2006.5 월 발효)을 맺은 상태이며, 양국 투자를 촉진/ 보호하기 위한 한-이란 투자 위원회 설립을 검토 중에 있음

3)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란의 경우 분쟁 발생시 대부분 법정에서 해결을 해야 하나 외국 업체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사전 예방 및 조치가 더욱 중요함.

30. 유형별 분쟁사례

가. 아국 수출 제품 이상 건

- 무역업체 H 사
 - 아국제품 수출 후 현지에서 하자가 발생, 수출업체에 배상을 요구
 - 아국 수출업체 거절
 - 이란 수입업체가 정부에 보고, Black List 에 아국 수출업체를 등록 (아국 수출업체는 자사 이름으로 대 이란 무역업무 전체가 중단됨)
 - 아국 수출업체의 적절한 보상과 타협
 - 이란 수출업체의 보고로 Black List 에서 삭제
 - 아국 수출업체 정상적으로 수출업무 재개
 - * 참고로 이란업체가 해외로부터 수입 후 가장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상기와 같은 Black List 에 올려 거래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임

나. 대금 지불 지연 건

- 자동차 부품업체 K 사
 - 이란 L/C 가 아닌 일부 선수금, 잔금은 도착 후 T/T 계약으로 Dubai 를 도착지로 제품 운송
 - 이란 업체 대금 지불 지연
 - 한국업체 Dubai 현지에서 할인가로 제품 판매
 - 주이란 한국대사관에 관련 비즈니스맨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중지 요청
 - 한국업체 분쟁해결을 하지 못하고 자체 손실
 - * 참고로 이란의 비즈니스의 경우 이란 은행 발행 L/C 를 기본으로 하면 대금 지불지연과 같은 건은 발생하지 않음

다. 투자금 회수에 대한 건

- 섬유기기 투자업체 J 사
 - 이란 섬유제품 생산업체와 합작투자 계약 체결
 - 무상으로 섬유기기 투자
 - 이란 업체 조업 중단
 - 계약했던 지분 및 기기 손실 발생
 - * 분쟁을 해결하지 못 하고 손실만 발생됨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투자 제한

- 이란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산업, 석유 화학, 석유가스 개발, 사회간접자본 시설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석유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왔으나 1996년 이후 Buy-Back 방식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약 40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있음.
- 2002.5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보호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는 전 산업부문 25%, 개별 분야당 3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수출 목적의 외국인 투자는 100%로 상향 조정함.
-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 허용 분야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함.
- 그러나, 수출 목적외의 서비스 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 등은 현재까지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 현재 동 외국인투자촉진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마련 중이므로 동 시행령이 공포되어야 구체적인 투자 가능 분야와 분야당 투자 한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단, 자유무역지대의 외국인투자는 100%까지 허용되며 석유화학 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 면제 등 특별 인센티브가 부여됨.

나. 외국인투자 현황

- 이란은 현재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서비스업 진출 등을 금지 하고 있음.
- 다만 광공업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 투자(100%까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안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과실송금 문제, 현지의 까다로운 노동 관행, 분쟁 해결 절차의 불투명성, 과도한 세금 부과, 느장 행정 등으로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실제로 외국인의 투자 사례는 미미한 상황임.
- 2002.5월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외국인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과실송금 보장이 미흡한 상황임.
- 2005.3월 이후 11월까지 9개월간 대이란 외국인투자는 총 6억7,400만불이었음.
- 이란 광공업성에 의하면 동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면에서는 50%, 금액 면에서는 14.5% 증가한 것이라고 하며 그 중 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총 27건에 3억8,270만불로 57%의 비중을 보였으나, 이란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통계에는 Buy Back 프로젝트 등 이란으로 유입된 외국 자본을 총망라하고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즉, UNCTAD 통계에 의하면 2004년 이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은 5억불로서 2002년 이후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음.
- 특히 대이란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의 정치적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란 핵 문제와 함께 아흐마디네자드 신정부의 보수강경 노선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 결정을 유보시키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이란 국내 자금조차도 해외로 유출되게 하는 이란의 투자환경과 특히 과실송금에 대한 보장 미비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등이 조속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2004-2005 회계연도 Top 10 대 이란 투자건

(단위: 천\$)

순위	국가명	내역	투자금액
1	남아프리카	Company Name: MTN International (Mauritius) Ltd. Project: Mobile syst	1,525,784
2	싱가폴	Company Name: Eurochem investment private Ltd. Project : Methanol production (petrochemical item	699,100
3	오스트레일리아	Company Name: Union Resources Ltd. Project: Explotation and Mining of zinc of Mehdi abad (Yazd	682,000
4	UAE	Company Name : Royal City Building Materials (LLC) Project: Construction of Khalij fars, commercial , sport, tourism and cultural comple	135,000
5	바레인	Company Name: Future Bank B.S.C. Project: investment in stock exchan	118,330
6	이태리	Company Name:1 - S.M.S. Demag SPA 2- Techint Compagnia Tecnica Internazionale SPA 3- IRASCO S.r.l. Project: Expansion and rehabilitation of Mobarakeh Steel Company (Isfaha	98,425
7	사우디	Company Name: Aujan Industries co. Saudi closed joint Company Project: Production of Aluminum Ca	54,417
8	네덜란드	Company Name: Vopak BV Project: construction of Tanks for reservation of chemical products (Boshehr cit	52,340
9	영국	Company Name: Nobel capital international Ltd. (NCI) Project: Production of glass under system of floa	47,700
10	사우디	Company Name: 1- Aujan Industries Co. 2- Rani International Holding co. Project: Production of Fruit Jui	31,953

자료원 : Iran Ministry of Economic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 최근에 이란 업체들의 경우 수출업체인 한국기업에 합작투자를 건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란업체가 투자를 건의하는 경우는 크게 아래의 두 가지가 대부분임.
- 이란업체 공장부지 제공, 한국업체 기계 및 know-how 제공
- 이란업체와 한국업체 공동 지분 투자하여 합작회사 설립

- 그러나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으로 1968 년부터 2005 년 까지 총 투자건수는 7 건에 지나지 않으며 제조업과 건설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졌음
- 투자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이란의 외국인 투자법이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실송금(재무성장관 승인 사항)과 수출 목적의 100% 단독 투자 시 사안별 심사, 서비스 법인에 대한 승인 불허 등 국제 수준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대이란 투자 중 대우자동차가 1,250만불 을 투자하여 이란의 Kerman Khodro사와 합작 설립한 Kerman Motors가 대표적 사례임.
 - 동 프로젝트는 연간 시에로 15,000대, 마티즈 5,000대를 CKD 방식으로 수입하여 현지 조립 생산하였으나 GM의 대우차 인수 이후 대우 측 사정으로 중단되었음.

33. 투자환경

가. 전반적 투자 여건

- 이란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자본과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매년 80만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 인력에게 제공할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특히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2002.5월 기존 외국인투자유치 및 보호법(1955.11월 제정)을 47년만에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분야 및 지분 한도를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1996년에 키쉬, 케즘, 차아바하 등 3개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동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산업별 16개의 경제특구를 지정,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감면 및 과실송금 보장 등의 모호성과 경직적인 노동법규 등으로 인해 이란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타국 대비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나. 투자 유치 정책

- 이란의 헌법 81조는 '무역, 산업, 농업, 광업, 서비스업 분야는 외국인에게 양도를 금한다' 라고 명시하여 원천적으로 외국인의 주요 산업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헌법수호위원회는 '주재국과 법적 계약을 체결한 이란 주재 외국 투자회사는 헌법 8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외국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면서 특정 자원 개발을 제외한 일반 산업 투자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100% 지분 취득을 인정하였음.
-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 국내의 경우 외국인 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나 사안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제로 100% 외국인투자 사례는 전무함.

- 이란의 외국인투자는 현지의 까다로운 행정 규제 및 인프라 미 구축 등으로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현재 이란정부는 외자 유치로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와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 및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06.9.17 이란 경제부 차관 및 OIETAI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장은 이란 일간지를 통해 은행, 보험업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 유치법의 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재차 확인

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 주요 법규
 - The Law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 The Law pertaining to the establishment of free trade-industrial zones in the Republic of Iran.
 - Regulations governing capital investment in the free trade-industrial zone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 관련 법규 주요 내용
 - 외국인의 투자 주체 : 자연인 및 법인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 불가)
 - 외국인의 투자 가능 분야 : 공업, 광업, 농업, 운송 등 서비스업
 - 외국 투자 자본의 대상 : 외국 화폐, 기계류/부품/원자재/운송장비/특허권 등 자본재와 지적 소유권
 - 최초 투자 자본의 대 이란 반입은 총 투자액의 최소 10%를 6개월 이내에 완료 (투자 보증 성격)

라. 현지 법인

1) 투자 허가 단계

- 현지 파트너 물색 및 계약 체결
- 광공업성(Ministry of Industries & Mines) 및 품목별 관련 부처에 투자 의향서 제출
-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of Iran에 합작투자 승인 신청 (심의기간 총 2주)
- 외국인투자위원회 (Foreign Investment Board; 경제관련 차관으로 구성) 심의
- 구비 서류
 - 합작투자 승인 신청서
 -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서
 - 사업 개요 (Project Summary)
 - 기타 (신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자료도 무방)
- 현지법인 설립 절차
 - 정관 작성: 회사 연혁, 목적, 기한, 자본금, 이사 및 감사의 수, 주주총회, 분쟁 해결 절차 등
 - 발기인 총회 개최
 - 설립 등기: 총회 사실의 신문 공고 후 등기소 등기
 - 등록 장소 및 기간: 등기소에 4개월 이내 등록 (동 기간 내 미등록 시 법원으로부터 6개월 연장 허가가 가능)

마. 지사 및 연락사무소

- 설립 절차는 현지파트너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광공업성 국제부에 지사 설립 승인을 신청하면 됨. (현지 업체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구비 서류는 지사 설립 승인 신청서, 이란 파트너와의 계약서 (공증 요), 활동계획서 (공증 요) 등이며, 소요비용은 없으며, 소요기간은 통상 2~3 개월 정도임.
- 신문 광고 후 등기소 등록으로 설립이 완료됨.

34. 투자인센티브

가. 자유무역지대 현황

-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Qeshm, Kish Island 및 Charbahar 지역을 자유 무역지대로 지정하고 "자유 무역지대 외국인 투자관련법"을 제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자유 무역지대 내에서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원자재, 부품, 반제품은 무관세로 통관이 되지만, 가공 후 60%는 재수출 또는 자유 무역지대 내에서 판매해야 하며 나머지 40% 만 이란 본토 반입이 가능함.
- 이때 이란 본토 반입시 적용되는 관세는 고율의 완제품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자유 무역지대로 당초 수입한 원자재에 해당하는 관세가 적용되어 저율의 관세를 납부하고 반입이 가능함.
- 투자 관련 법 정비 지연, 항만 도로 등 제반 인프라 미비, 공업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발전소, 공업용수 등 제반 시설에 대한 외국 기업의 B.O.T (Built Operation Transfer) 방식 참여 조건부 등 제약 요인이 상존하여 실제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는 미미함.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대만, 오스트리아, UAE 등 기업 진출)

나.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수입 원재료 및 시설재에 대한 관세 면제
- 투자 외국 기업에 대해 15년간 내국세 면제
- 투자 지분 100% 소유 보장
- FTZ에서 이란 본토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면제 (국내생산 부가가치 비율 한도 내에서 60% 이상일 경우)
- 자본 및 임금에 대한 송금 보장
- 100년간 장기 부지 임대 허용
- 노동법 적용 완화
- 무비자 출입국 허용 등 각종 편의 제공
- 외국은행 설립 허용

다. 조세 감면

-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경우 1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 석유화학 특별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 기타 이란 본토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는 도입 예정임

35. 타당성조사

가. 생산 여건

- 이란정부가 수입대체 산업육성을 국시로 삼아 추진하고 있어 제3국 및 자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최근에는 강력한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원부자재 조달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
- 현지 노동 인건비가 저렴하고 사회간접 자본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관공서의 업무 처리가 비교적 느린 편에 속하는 것이 단점임.
- 7천만에 달하는 소비 인구 및 인근 CIS국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여 판매 잠재력이 큰 편임.

나. 사전 검토를 요하는 규정

- 물품 수입 시 제조 및 공급 업체의 해당 국가를 나타내는 원산지 증명서를 신용장 개설 은행 및 세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임.
- 상표권 보호 시점은 신청 등록 시점이며 보호 기간은 10년, 갱신 기한은 보호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임.
- 의장권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태임.
- 특허권은 출원자의 요청에 따라 5년, 10년, 15년 및 최대 20년까지 보호하며 보호 시점은 신청 등록 시부터 임.
- 이란 GREEN ENVIRONMENT PROTECTING ORGANIZATION은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공장 설립 시 해당 지역의 동 조직위로부터 허가를 득하도록 의무화하는 신 환경 보호법을 채택하고 있음.
- 이란 세관은 반덤핑법에 의거, 각 상품에 대한 표준가격을 자체적으로 책정, 수입 물품이 표준가격 이하로 신고된 경우 표준가격을 근거로 관세를 계상 징수함.

36. 투자 진출형태 및 진출 절차

가. 진출 형태

- 합작 법인
 - 이란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하며, 비교적 설립이 쉬움. 현재 삼성전자, 삼성물산,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LG 상사, GS 건설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나 아직은 모두 연락 사무소 형태임
- 연락사무소
 - 한국 업체명으로 설립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에만 허가를 내 줌.
- 무등록 사무소
 - 현지 체류 경험이 많은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사무실만 임차 수출입 업무를 함.

나. 진출 여건

- 1979년 회교혁명 발발 이후 1997.8월 처음으로 외국 기업의 등록을 허가하는 법안이 발효되어 이란에 주재원 사무소나 지점 설치 관련 법률적인 제한이 없어졌지만 실제 허가를 득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편임.
- 동 법안은 합법적으로 이란 내에 외국기업의 법인 등록 및 지사 설치가 가능하고 이는 상호 호혜적인 입장 즉, 이란 기업의 합법적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란 법규 및 정부에 의해 허가되는 지역에 한하여 활동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란의 상법 및 외국인 투자 유치법을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음.

다. 등록 절차

- 정식 등록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하여 사무실 및 주거지와 고용원(외국인 1인당 현지인 3명 고용을 의무화)을 확보.
- 지점의 설립 등기는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 서류가 많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필요 서류는 위임장, 활동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회사정관, 임명장(창설요원), 재직증명서, 연간 활동성과표, 지점 자금조달 계획서, 현지 고용원 조달계획서 등이며 동 서류를 영문 작성하여 한국 외무부 영사과 인증 후 주한 이란대사관 확인을 득하여야 함.
- 현지 등록 시에는 이를 현지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득한 후 등기소에 업체 등록을 신청함.

라. 참고사항

- 상기 지점 설립이 되면 취업 및 체류 비자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지점 등록하는데 3-5개월 가량의 시일이 소요되어 단기비자의 연장 등이 필요함.

- 상기와 같은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에서 지점을 열기는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결과적으로 설치 허가를 잘 내주지 않고 있어 최근까지 지점이 설치된 중소기업체는 거의 없는 상황임.

마. 투자방식

- 이란 외국인투자촉진보호법에(2002.5월 개정) 의하면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는 산업 전체의 25%, 개별 분야당 3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수출 목적의 외국인 투자는 100% 단독투자가 가능함. (단, 자유무역지대의 외국인투자는 100% 단독투자가 허용됨.)
- 합작투자는 외국인 지분 비율을 49%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각료회의의 승인을 득하면 100% 단독투자도 가능함.
- 특정 자원 개발을 제외한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안별로 해당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실제로 100% 외국인 단독투자 사례는 전무함.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서비스업 진출은 금지되어 있음.

37. 입지선정

가. 진출 유망 지역

1) Isfahan

- 면적 : 107,102 Sq.Km2
- 인구 : 3,923천명
- 수도 : 이스파한
- 주요산업 : Tourism, Steel, Textile, Mines & Metals, Carpet

2) East Azerbaijan

- 면적 : 45,460Sq.Km2
- 인구 : 3,325천명
- 수도 : 타브리즈
- 주요 산업 : Carpet, Heavy Ind., Agriculture

3) Korasan

- 면적 : 302, 913Sq.Km2
- 인구 : 6,047천명
- 수도 : 마샤드
- 주요 산업 : Foodstuff, Agriculture, Tourism

4) Kerman

- 면적 : 232,963Sq.Km2
- 인구 : 2,004천명
- 수도 : 케르만
- 주요 산업 : Automotive Ind., Agriculture, Mines & Metals.

나. 산업단지

- 이란 정부는 3개의 자유무역지대와는 별도로 주로 내륙 지역에 Sarakhs, Sirjan, Anzali 등 16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임.
- 합작투자는 외국 자본의 비율을 49%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료회의의 승인을 득하면 100% 단독 투자도 가능함.

다. 이란의 주요 산업단지

1) Anzali Port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 길란주
- 사업 시행 주체 : Port & Shipping Organizaton of Gillan Province
- 주소 : Anzali Port
- 전화 : 98-181-34005/7
- 팩스 : 98-181-34802

2) Anzali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 길란주
- 부지 면적 : 140헥타르
- 사업 시행 주체 : Gilan Investment Development Co
- 주소 : Takhvar Bldg., Hafez Ave., Rasht
- 전화 : 98-131-734093
- 팩스 : 98-131-31673

3) Sarakhs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 코라산주
- 부지 면적 : 5,200헥타르
- 사업 시행 주체 : Astan-e Qhods Razavi
- 주소 : No. 3, Chamran St., Chamran Ave., Mashhad
- 전화 : 98-51-715065/6
- 팩스 : 98-51-715067

4) Sirjan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 케르만주
- 사업 시행 주체 : Kerman Development Organization
- 주소 : No.413, Sattarkhan St., P.O.X 14547, Tehran
- 전화 : 98-21-820 7043/5
- 팩스 : 98-21-820 4703

5) Khuzestan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 쿠제스탄주
- 부지 면적 : 2,500헥타르
- 사업 시행 주체 : Khuzestan Overall Construction Development Co
- 주소 : No. 28, 17th St., Kianpars Ave., Ahwaz
- 전화 : 98-611-368648
- 팩스 : 98-611-368649

6) Sirjan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 케르만주
- 사업 시행 주체 : Kerman Development Organization
- 주소 : No.413, Sattarkhan St., P.O.Box 14547, Tehran
- 전화 : 98-21-820-7043/5

7) Sarakhs Special Economic Zone

- 소재지 : 코라산주
- 부지 면적 : 5,200헥타르
- 사업 시행 주체 : Astan-e Qhods Razavi
- 주소 : No. 3, Chamran St., Chamran Ave., Mashad, Iran
- 전화 : 98-51-715065/6

38. 공장설립

가. 개황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에 의한 공장설립 사례는 없음.

이는 이란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분을 한도를 철폐 하였음에도(2002. 6월) 불구하고, 사안 별로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국 수출 목적의 투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로서는 외국인 투자 공장은 자유무역지대 입주가 바람직한 상황임.

나. 공장 설립 시 참고사항

부지 임차 비용은 제조업용 1000평, 키쉬 자유무역지대를 기준으로 약 11,000불 수준임.

외국인 업체 세제 혜택은 자유무역지대를 기준으로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를 15년까지 면제 받을 수 있음.

법인 은행대출 금리는 연 7.5-9.25% 수준임.

본토는 물론, 자유무역지대 또한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장기 임차를 통해 공장 설립을 추진해야 함.

다. 공장 설립 절차

공장 설립 절차는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크게 3가지로 나누면 아래와 같음

- 자유무역지대
- 경제특구
- 일반 지역

상기의 3개 지역은 지역마다 설립 절차, 준비 서류 등이 각각 틀리며, 소요 비용도 차이가 있음.

대표적인 자유무역지대 Chabahar 지대의 공장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음.

1. 공장 설립 요청 공문
2. 공장 설립 관련 Proposal
3. chabahar 정부 검토
4. chabahar 정부 승인 공문
5. 업체 등록 및 상호 등록
6. 부지 선택을 위한 chabahar 방문 실사
7. chabahar 정부와 공장 설립 계약
8. 영업허가서 취득
9. 공장설립

라. 공장 설립에 따른 소요 비용

- 업체 등록비 : 950\$
- 상호 등록비 : 140\$
- 연간 라이선스 사용비 : 최저 360\$
- 공장부지 주소 등록비(최저 12개월 이상 등록) : 월 100\$
- 상업카드 발급비 : 120\$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이란정부내의 투자관련 기관으로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Finance” 산하 “The Organization for investment,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of Iran(OIETAI)가 있으며, 동 기관 내에 CFIS (The Center for Foreign Investment Services)라는 내,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 창구를 두고 있음

- * 최근 OIETAI는 KOTRA와 한-이란 투자 위원회 설립을 위한 MOU 체결 요청을 해 왔으며,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최근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전문기관 OIETAI내에서 대 투자자서비스 창구인 CFIS(The Center for Foreign Investment Service)를 설치하였음
- CFIS의 역할
 - 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자료 제공 및 관련 기관 및 정부기관을 연결
 - 외국 투자자들이 내국인들에 비해 차별 받지 않도록 지원을 해줌

41. 노무관리

가. 고용

- 특별한 고용 절차는 없으며 광고 등을 통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되나 현지 법규상 외국인 1명당 현지인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함.
- 외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주재국 노동부에서 사안별로 심의 후 현지인 의무 고용인 수를 결정함.
- 고용계약시 수습 기간은 비숙련공 및 반숙련공 최대 1개월, 숙련공 및 전문직 최대 3개월임.
- 무급 교육휴가는 최대 2년까지 임. (추가 2년 연장 가능)
- 계약 종료의 경우는 피고용인 사망, 퇴직, 사직,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 계약에 의한 작업 완료 등이며 사직서 제출후 15일 이내에 반복할 수 있음.

나. 임금

- 매년 이란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2006/7 회계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무려 30%가 인상되어 이란 기업들조차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임시직 : 월 236만 리알 (약 260불)
- 정규직 : 월 200만 리알 (약 220불)

- 현지 진출한 한국 상사 및 외국 상사 기준 직급별 임금 수준은 다음과 같음.
- 대졸 남자사원 : US\$ 400 - 700
- 고졸 여사원 : US\$ 200 - 300
- 생산직 및 잡급 : US\$ 200 수준
-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근무시간의 1.4배를 지급하며 (사무직, 일반직) 야간 작업자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자의 초과 근무 작업은 금지됨.

다. 해고 및 퇴직

-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소홀했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고용인은 서면에 의한 고지 후 고용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퇴직금으로 1개월분 급여 X 근무년수를 지급해야 함.
- 퇴직금은 피고용인 사망시 1년당 3개월분 급여 X 근무연수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무년수 X 1개월(최저) 또는 2개월(최대)을 적용함.

라. 사회보장제도

-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을 시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피고용인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를 현지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데, 고용주가 23%를 부담하고 피고용인이 7%를 부담함.
- 이종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자국에서 사회보장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장제도 가입 의무가 면제됨.
-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며 단지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고용주의 의무는 충족됨.
- 의료보험 등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는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음.

마. 노동조합

- 이란은 노동법으로 하기 2개 형태의 노동 조직만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연합 같은 기구는 존재치 않음.
- 이슬람이념선교회 (ISLAMIC SOCIETIES) : 작업장에서 이슬람 경전 준수 여부 감시 및 이슬람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 임의 가입 가능
- 이슬람노동협의회 (ISLAMIC LABOUR COUNCIL) : 임금, 노동시간 및 작업장 행정 관련 문제에 대해 경영자와 협의하는 역할. 법률적으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권한은 제한되어 있음. 노무자 및 경영자 대표 가입 가능
-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에 의해 단체협약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실패하여 파업 및 조업 지연 사태가 발생할 시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이의 불응시 중재법정에서 최종 판결함.

- 이란의 경우 상기 2개 노동조직만 허용되고 있고 직장별 노조 결성이 제약되어 있는바, 상기 2개 노동조직의 경우 법적인 영향력이 미약, 정부의 의도대로 노동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 노동쟁의 및 파업등과 같은 사태 발생은 거의 불가능함.

바. 기타

- 법규 및 관행상 신년 연휴 특별 상여금(급여의 100% 수준) 지급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한 교통비 지급은 보편화되어 있으나 점심식대 등은 고용주 자율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 유급휴가는 1년에 1개월(4번의 금요일 포함)이 보통이나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은 5주를 적용함. (그 중 9일은 급여로 대신할 수 있음.)
- 이외에도 하지순례 휴가는 평생근무 기간 중 1회, 1개월을 부여하며 경조사 휴가는 3일,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는 6일을 적용함.

42. 조세제도

가. 개황

이슬람 헌법 51조는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조세 법률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음.

조세행정조직은 재무성에 세제국을 두고 그 산하에 국세청을 설치하여 조세정책 및 징수행정을 관장함.

하지만 비효율적인 조세 시스템으로 인해 현지 비즈니스맨들의 조세 포탈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세 관련 업체들의 분쟁도 많은 상황임

나. 조세의 종류

1) 법인소득세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과세 대상으로 외국 투자자가 출자하여 이란 내에 설립한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지점도 과세하고 있음.

과세 대상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세토록 되어 있으며, 세율은 25%임.

2) 법인 영업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회계연도 중 과세 대상 법인 소득의 10%를 부과함.

3) 개인소득세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소득에 대해 12~54%까지 누진세율을 적용 함.

외국인 회사의 본국 파견 직원에 대해 인도세 성격의 개인소득세(약 23%)를 부과하고 있음.

4) 기타

- 계약세 : 건설 및 용역 회사의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5.5%를 원천 징수
- 광업세 : 석유 및 기타 광물 분야 종사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 55% 부과

43. 외환관리

가. 외환관리 제도

- 외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란 중앙은행이 고시 및 통지하며, 외환 거래는 2개의 외환시장, 즉 공식 외환시장(Official Market)과 비공식 외환 시장(Free Market)으로 이루어져 있음.
- 외환 관련 규정에 의거, 이란인 및 거주 외국인의 해외 출국 시 1인당 US\$ 3,000 이내로 소지 한도가 제한되고 있음.
- 병 진료 및 유학의 경우 미화 소지 한도 US\$ 3,000불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외에서 유입된 외환은 자유로이 반출 가능함 (입국시 신고한 경우)

나. 환율 정책

- 이란은 과거 외환 용도에 따라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2개의 환율을 각기 적용하였으나 2002. 4월부터 공식환율을 폐지하고 시장환율(변동환율)로 단일화함.
- 2001년 \$1달러당 7,921 리알에서 2006년 9,180 리알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평가절하 되고 있으며, 향후 \$1달러당 10,000 리알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

44. 이주정책 가이드

가. 생필품조달

그간 현지 거주 외국인의 경우 생필품을 두바이 등 인접국에서 공수하였으나 최근 대부분의 생필품이 비공식 루트로 반입되고 있어 주재국내 대형슈퍼에서 구입이 가능. 다만 브랜드가 다양하지 않고 가격이 비싼편임.

나. 한국식품 조달 여건

현지 주재원의 주된 걱정거리가 한국식품 조달 문제임. 현지에는 한국 식품점이 없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아방"이라는 시장이 있으나 한국인 기호와는 상당 수준의 괴리감이 있음.

따라서 현지 주재원의 경우 통상 3개월에 1번 꼴로 두바이를 방문, 필요 한국식품을 구입해오고 있는 실정이며, 완화되긴 하였으나 이란 세관 통관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음

- 현지 건설현장 근로자용 한국식품의 경우도 10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다. 레저여건

수도 테헤란 시내에 대형 축구장, 스포츠센타, 수영장, 테니스장 등 사회체육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임.

골프장도 1개(13홀) 있으나 관리 소홀로 잔디상태가 좋지 않으며 1회 필드 이용료가 약 550,000리알 (약 US\$59)로 현지 물가대비 매우 비싼 편임.

외국인들의 경우 겨울철에는 스키장(테헤란에서 승용차로 2시간)을 애용하며, 다른계절에는 테니스나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임.

라. 주거 환경

유흥시설이 없어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여야 하며 가족단위의 모임이 주로 가정 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내가 비교적 큰 편임.

임차계약 기간은 통상 1년이며 소유주의 경우 임차시 1년 선불 또는 6개월 선불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임차계약 해지 시는 현지 관습에 따라 1개월분 임차료를 주택 소유주에 납부해야 하며 선불 납부시 잔여 기간분에 대한 환급이 용이하지 않음.
- 외국인의 경우 계약 만료 후 소유주가 과도한 주택 damage charge(원상 복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유주와 외국인간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함.

마. 치안상태

엄한 종교율법에 따라 치안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으로 주간 및 야간 외출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테헤란에 소재한 주택 대부분은 담장에 철제망이 설치 되어있으며 2중 문과 많은 열쇠를 사용하고 있음. 또한 차량 내에 옷가지, 핸드폰, 가방 등을 남겨 두고 내릴 때는 매우 위험한데, 종종 차문을 부수고 차량내의 물품을 훔쳐가기도 함.

참고로 최근 터키접경 이란의 북동부 지역과 파키스탄 접경 남서부 지역의 경우 종교적, 인종적 문제로 치안이 나빠진 상태로 이란의 국경 접경지대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의료시설

테헤란에는 약 160개의 병원과 350개의 클리닉 센터가 있음. 이란의 병원은 진료 수준차가 심한데, 주로 외국인이 이용하는 유명병원은 대부분의 의사가 혁명전 미국, 유럽 유학파로 영어가 능통하며 진료수준이 매우 높음.

약국은 테헤란 곳곳에 약국을 쉽사리 찾아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의약품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함. 약국 이용 시에는 감기약 등 통상적인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 구입이 가능함.

사. 주택

주택 또는 사무실 물색을 위해서는 주거희망 지역의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소개 받거나 현지 영자지에 광고되는 주택정보 활용이 권장됨.

○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다양함.

임차료 수준은 외국인의 경우 미화 지불을 전제로 월 미\$ 2,000 - 5,000 정도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개월치 임차료로 임차인과 임차주가 각각 50%씩 지불함. 임차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이며 소유주의 경우 임차 시 1년 선불 또는 6개월 선불조건을 요구함. 일 또는 월 단위의 단기주택 임차도 가능함.

아. 전화신청

신규전화 신청비는 1,000,000리알로 공급부족으로 신청 후 통상 1년여를 기다려야 배정받을 수 있어 주택임차시 기존 가설전화 라인을 승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핸드폰의 경우는 신규 가입비가 6,000,000리알이며 신청후 1년여를 기다려야 함. 구입 즉시 핸드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핸드폰 라인을 구입해야 하는데, 기기를 제외한 핸드폰 라인 가격만 1,200불에 달하고 있음.

자. 비품 구입

집을 구할때 대부분이 집기 및 비품이 갖추어져 있어 별도 구매는 필요 없음.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 필요 비품은 계약전에 임차주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차. 자녀 교육여건

이란의 자녀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함.

초등학교의 경우 영국계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으나 학생수가 약 30명에 불과하며 독일인 학교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국교민들은 대부분 테헤란 소재 한국인 초등학교 또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널 스쿨에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음.

그러나 중등 및 고등과정의 경우 미국계 및 영국계 학교가 전무, 한국인 학교도 운영되지 않아 현지인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제 3국 유학을 보내고 있음.

현지 인터내셔널 스쿨은 코란(이슬람 성경)을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는 등 커리큘럼이 열악하고 현지인 교사들로 교사진이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현지 주재원의 경우 자녀를 말레이시아나 인도, 영국 등 제3국에 유학시키는 경우가 많음.